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4. 20(목),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경립, 김봉렬, 이재인, 정명섭, 정은우,
주상희(정현), 홍성걸, 홍승재 (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종무소 신축(재심의)	공개
2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창고 신축(2차)	공개
3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2차)	공개
4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공개
5	합천 해인사 홍제암 주변 보승문 주변정비	공개
6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주변 대웅전 등 증축	공개
7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선원 건립	공개
8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개
9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수목제거 및 토지형질변경	공개
10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 진입로 인도 개설	공개
11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향문화체험관 증축	공개
12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약수암 청허당 증축	공개
13	안동 소호헌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예절관 및 생활관 개보수(2차)	공개
15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육상골재 채취 및 토사적치	공개
16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창고 신축	공개
17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주변 숲길조성사업	공개
18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축사 신축	공개
19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근생 및 다가구주택 건립(2차, 재심의)	공개
20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다가구주택 건립	공개

21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 중흥사지 내 요사채 및 석축 복원	공개
22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주변 단독주택 건립	공개
23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삼성각 건립(2차)	공개
24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창고시설 건립	공개
25	서울 흥인지문 주변 판매시설 증축	공개
26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요사채 건립공사	공개
27	정읍 피향정 보호구역 정비	공개
28	여수 타루비 및 동령소갈비 보존처리	공개
【검토사항】		
29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30	건조물문화재 국보 지정 추진계획 재검토	공개
【보고사항】		
31	2016년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보고	공개
3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98-14번지)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98-23번지) -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허가) - 울주 망해사지 승탑 3D스캔 및 정밀실측조사 -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3D스캔 및 정밀실측조사 -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주변 칠곡 컨트리클럽 진입도로 개설 -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건립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교량가설 및 제방 공사 -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주변 백흥암 진입로 정비 -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주차장 조성 -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농로 및 배수로 정비(2차)	공개

	– 경주 독락당 주변 체험시설 증축 – 여수 진남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창고부지 조성 –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방재시스템 구축 –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가설건축물(저온저장고) 축조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수목 벌채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보도교(출렁다리) 설치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청주 옥 터” 바닥 표지판 설치 –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숲가꾸기 사업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부지조성(허가사항 변경)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농로 확·포장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도로개설(재허가) –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야간조명 설치 –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주변 벼룩시장 운영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04-001

1.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종무소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보물「양산 신흥사 대광전」주변에 종무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종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내에 해당됨.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3.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산시장

(2) 대상문화재 : 양산 신흥사 대광전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번지

○ 지 정 일 : 1992. 01. 15.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종무소 신축

구분	당초 신청안	수정 제출안
건축면적	50.4㎡	좌동
규 모	지상1층, 높이5.55m	좌동
양 식	3량가, 한식목구조, 홑처마, 맞배	좌동
위 치	·종무소를 천왕문 서측에 인접하여 신축	·종무소를 현 범종각 위치에 신축 ·범종각을 천왕문 인근으로 이축 (동향→북향 / 동쪽 1.5m, 남쪽 10m 이동)

라. 현지조사 의견('17.04.04.)

○ 신청부지는 사찰 중심영역의 전면이고, 천왕문의 측면으로 종무소가 들어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치와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종각 우측 이동 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02

2.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창고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창고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1.19.)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181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85-1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70m

○ 사업내용 : 창고 신축 2동

구분	1차	금차
건축면적	200㎡(100㎡×2동)	122.4㎡(59.4㎡+63㎡)
규모	지상 1층 ·가로25m×세로4m×높이4.7m×2동	지상 1층 ·가동 : 가로18m×세로3.3m×높이4.7m ·나동 : 가로18m×세로3.5m×높이4.7m
구조/마감	경량철골조 / 샌드위치 판넬	경량철골조 / 샌드위치 판넬

라. 현지조사 의견('17.04.13.)

○ 신청 부지와 당해 문화재 사이에는 솔숲이 있어 차폐 역할을 하여 보이지 않으며, 생활용(농기계 창고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여 규모 등(실질적인 높이로 축소, 창고의 동을 분절하여 경관 유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청대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에 해당하며 문화재로부터 274m 떨어진 곳으로 현상변경 신청안은 경량철골조 지상 1층 창고 신축이며 기신청하여 불허된 것을 수정하여 재신청한 건임. 신청대지가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하지만 송림이 차폐 수목 역할을 하여 당해문화재인 당간지주가 상호간에 직접 가시되지 않음. 신청건물이 최고 높이 4.3m의 단층 경사지붕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도로변에 접한 면의 길이가 25m로 과도하여 전체적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큼. 당간지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도로와 면한 부분을 일정 비율로 분절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줄여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송림은 차폐역할을 하고 있어 원형 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간격 5m 이상 이격 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03

3.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보물「홍천 희망리 삼층석탑」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다만,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3.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 소 재 지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51-7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 64-3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20m

○ 사업내용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구분	최초 신청안	1차	금차
대지면적	1,868㎡	좌동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1,215.77㎡ (11,947.25㎡)	1,215.77㎡ (11,468㎡)	1,223.35㎡ (10,649.89㎡)
층 수	지하2층, 지상16층	지하2층, 지상15층	지하2층, 지상13층
건물높이	53.5m	50.6m	44.8m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좌동	좌동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좌동	좌동

라. 참고사항(현지조사 <'17.02.20.>)

○ 신청부지는 삼층석탑, 홍천성당, 향교가 있는 홍천읍 중심의 전면 경관축에 해당되는 위치로 주변에는 3~4층 정도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문화재에서 보이는 도시경관축에 해당되는 위치로 주변의 스카이라인과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와 높이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04

4.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보물「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3.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 소 재 지 :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8-4

○ 지 정 일 : 1971. 07. 07.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647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 분	1차	금차
건축면적(연면적)	110.5㎡(143.36㎡)	100.77㎡(97.03㎡)
규 모	지상 2층, 건물높이 7.8m(평지붕)	지상 1층, 건물높이 7.4m(경사지붕)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 입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6명, 원안가결 1명, 기권 1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05

5. 합천 해인사 홍제암 주변 보숭문 주변정비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보물「합천 해인사 홍제암」주변 보숭문 주변정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계단 및 연못을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명승 「가야산 해인사 일원」의 지정구역 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해인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합천 해인사 홍제암

○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4

○ 지 정 일 : 2000. 09.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4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홍제암)에서 25m

○ 사업내용 : 보숭문 전면 계단 및 연지 설치

- 계단설치(높이 3m, 폭 4m, 길이 6.7m / 화강석 도드락 마감)
- 연지조성(둘레길이 34m, 깊이 1.2m / 자연석 석축)
- P.E 배수관 설치(지름 0.3m, 길이 28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배수처리, 계단 규모 조정 후 사업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7명, 부결 1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06

6.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주변 대웅전 등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주변에 대웅전 등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대웅전 등을 증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12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01.19) : 부결

- 석불상으로 올라가는 진입부에 2층 건물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12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08.16)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굴불암 주지

(2) 대상문화재 :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 4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412-1번지 외 4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9m

○ 사업내용 : 대웅전 등 증축

- 기존 요사채1, 산신각, 대웅전 철거

  · 요사채1 철거 : 23.00㎡

  · 산신각 철거 : 7.29㎡

  · 대웅전 철거: 40.50㎡

구분	1차	2차	금차
건축면적 (연면적)	단독주택 : 157.81㎡ (267.12㎡)	단독주택 : 198㎡ (198㎡)	대웅전 : 100.8㎡ 산신각 : 6.48㎡ 요사채 : 217.8㎡
건축구조 / 지붕	철근콘크리트조 / 한식기와지붕	한식목구조 / 기와지붕	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 / 팔작지붕
층수 및 높이	지상 2층 / 10.6m	지상 3층 / 10.8m	지상 1층 / 11.4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6명, 보류 2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07

7.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선원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에 축서사 선원 이건·건립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원 이건·건립공사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축서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 지 정 일 : 1989. 04. 10.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108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축서사 선원 이건·건립공사

- 연면적 : 76.11㎡
- 구　조 : 한식목구조
- 규　모 : 지상1층(정면 3칸, 측면 3칸)
- 양　식 : 초익공,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08

8.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주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다만,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49-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7m

○ 사업내용 : 주상복합건물 신축

- 부지면적 : 549㎡
- 건축면적(연면적) : 232.39㎡(1,869.69㎡)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 1층, 지상 15층 / 43.50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09

9.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수목제거 및 토지형질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주변에 수목 등의 제거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수목 등의 제거 및 토지형질변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북산림환경연구원

(2) 대상문화재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번지

○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11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m

○ 사업내용 : 수목 등의 제거 및 토지형질변경

- 사방댐 2개소, 야면석 기슭막이(H=1.5m)219m, 바닥막이 1개소, 피복공사 등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0

10.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 진입로 인도 개설

가. 제안사항

충남 청양군 소재 보물「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주변에 장곡사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장곡사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청양군수

(2) 대상문화재 :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 소 재 지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241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20번지 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0m

○ 사업내용 : 장곡사 진입로 인도설치공사(L=320m, B=2m)

- 아스팔트포장(T=5㎝) 1,899㎡, 콘크리트포장(T=20㎝) 1,395㎡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1

11.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향문화체험관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도리사 석탑」주변에 향문화체험관 증축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향문화체험관 증축공사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도리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구미 도리사 석탑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

○ 지 정 일 : 1968. 12. 19.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 도리사 경내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도리사 향문화체험관 증축

- 건축면적(연면적) : 358.73㎡(779.57㎡-증축 53.27㎡)
- 구　조 : 한식구조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2층 일부 증축)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구조 검토 후 사업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2

12.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약수암 청허당 증축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약수암 청허당 외 2동 증축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약수암 청허당 외 2동 증축공사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외 6건

○ 소 재 지 : 대구 동구 팔공산로201길 41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48번지 4필지 약수암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00m

○ 사업내용 : 약수암 청허당 외 2동 증축공사

구 분	건축구조	건축규모	건축연면적(㎡)	최고높이	층수	비고
청허당	한식목구조	지상1층	37.8	6.12m	1층	연결증축
공양실	한식목구조	지상2층	53.46	11.24m	2층	2층증축
우물보호각	한식목구조	지상1층	9.72	4.36m	1층	별동증축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 전문가 자문 후 사업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3

13. 안동 소호헌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안동 소호헌」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1인

(2) 대상문화재 : 안동 소호헌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소호헌길2(망호리)

○ 지 정 일 : 1968. 12. 19.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6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연면적 : 141.6㎡(2동)
- 규모 : 지상 1층(가로11m×세로6m×높이4.75m×2동)
- 구조/지붕 :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경사지붕(멀티강판기와-한식형)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4

14.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예절관 및 생활관 개보수(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향교 대성전」주변에 예절관 및 생활관 개보수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예절관 및 생활관 개보수 공사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9.22.) : 부결

-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재단법인경상북도향교재단 경주향교

(2) 대상문화재 : 경주향교 대성전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교동 17-1번지

○ 지 정 일 : 2011. 12. 02.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교동 18-8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예절관 및 생활관 2개동 개·보수

구분	예절관		생활관 가동		생활관 나동		비고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건축면적	7.2㎡ 증가	**7.2㎡ 증가**	11.6㎡ 증가	**5.76㎡ 증가**	11.6㎡ 증가	**5.76㎡ 증가**	
내용		**창호 개폐 방향 변경**	욕실1 주방1 벽장3	**욕실1 주방1**	욕실2 벽장3	**욕실2**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7명, 보류 1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5

15.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육상골재 채취 및 토사적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주변에 육상골재 채취, 토사적치 및 도로개설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육상골재 채취, 토사적치 및 도로개설을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식회사 덕우

(2) 대상문화재 :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439-30, 산106번지

○ 지 정 일 : 1980. 09. 16.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528-4번지 외 2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33m

○ 사업내용 : 육상골재 채취, 토사적치 및 도로개설

- 골재채취(A=20,202㎡), 적치장(A=11,843㎡), 도로(A=2,483㎡)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하천 지형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6

16.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영양 현리 삼층석탑」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창고를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번지

○ 지 정 일 : 1977. 08. 22.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11-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6.4m

○ 사업내용 : 창고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16.64㎡(116.64㎡)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5.2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7

17.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주변 숲길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주변에 숲길조성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숲길조성사업을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명봉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1-1번지

○ 지 정 일 : 2010. 02. 24.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1-1번지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m

○ 사업내용 : 숲길조성사업(L=140m, B=4m)

- 시설물공사 : 거적덮기 70m, 노면정비 140m, 데크계단(2개소) 41m, 목재계단 26m 등
- 식재공사 : 단풍나무 150주, 산철쭉 1,500주, 조팝나무 600주, 진달래 300주, 화살나무 500주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8

18.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축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청도 봉기리 삼층석탑」주변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축사를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에 해당됨. (다만,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개별심의 대상)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719-5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 316-1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축사 신축

- 동수 : 5개동(가설 3개동-1개동 가축분뇨 처리용(561.95㎡))
- 연면적 : 3,315.95㎡(가설 2,625.95㎡)
- 구조/지붕 : 강파이프구조 / 경사지붕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7.69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19

19.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근생 및 다가구주택 건립(2차, 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에 근생 및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생 및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2.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3.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외 1인

(2) 대상문화재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 소 재 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2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6m

○ 사업내용 : 근생 및 다가구주택 건립

구분	1차	금차
건축면적 (연면적)	95.35㎡(277.66㎡)	95.35㎡(225.17㎡)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및 높이	지상 4층 / 13.5m	지상 3층 / 10.8m

라. 현지조사 의견('17.04.12.)

○ 중초사지의 영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부지는 사지의 인접지역이고, 사지의 장기적인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 다만, 신청부지 주변의 기존 건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0

20.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다가구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광주 동구 소재 보물「광주 지산동 오층석탑」주변에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 소 재 지 : 광주 동구 지산2동 448-4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광주 동구 지산동 447-9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2m

○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건립

- 사업면적 : 343.0㎡
- 건축면적(연면적) : 205.20㎡(636.12㎡)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4층 / 15.4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1

21.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 중흥사지 내 요사채 및 석축 복원

가. 제안사항

경기 고양시 소재 보물「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주변에 중흥사지 내 요사채 및 석축을 복원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중흥사지 내 요사채 및 석축을 복원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시도지정문화재(경기 기념 제136호 북한산중흥사지) 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중흥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5

○ 지 정 일 : 1977. 08. 22.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30m

○ 사업내용 : 요사채 및 석축 복원

- 요사채(2동)

・건축면적(연면적) : 78.39㎡(78.39㎡) / 43.2㎡(43.2㎡)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575m

- 석축

・H=3m, L=128.44m / H=2m, L=31.28m / H=1.5m, L=20m / H=1m, L=30.28m

・화계설치(15m), 계단설치(5개소)

라. 참고사항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회의 결과('17.02.24)

- 조건부가결 (요사채 및 석축 복원 가결, 팔도도총섭 승영지 복원 제외)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2

22.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보물「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7-6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40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8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

- 사업면적 : 940㎡(부지 850㎡, 진입도로 90㎡)
- 건축면적(연면적) : 99.32㎡(99.32㎡)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8m

- 자연석 쌓기 : H=2m, L=40m / H=1m, L=15m
- 암거 설치 : 2.5m×2m×4m(1개소)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7명, 보류 1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3

23.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삼성각 건립(2차)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영동 영국사 삼층석탑」주변에 삼성각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삼성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시도유형문화재(영동 영국사 대웅전) 보호구역 내임.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2.16) : 조건부가결

- 금회 산신각은 보완 후 재심의, 기타 사업은 현지조사 의견 반영 후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국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 소 재 지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6

○ 지 정 일 : 1971. 07. 07.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8-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시도유형문화재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삼성각 건립

구분	1차	금차
건축면적(연면적)	17.01㎡(17.01㎡)	좌동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좌동
층수 및 높이	지상 1층 / 5.35m	좌동
기타	기존 산신각 철거	기존 산신각 철거 석축 설치(H=0.75m, L=14m)

※ 금회 신청 시 주요 변경 사항 : 건립 위치 조정 등

라. 참고사항(현지조사 <'17.02.13>)

○ 현 대웅전에는 산신탱화와 같은 시기(1907년)의 독성탱과 칠성탱이 모셔져 있으므로 산신각을 삼성각으로 조성하여 함께 모시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신각의 위치는 고려시대 사지를 가리고 있으므로 적정위치를 잡아 이전 신축하되, 부지는 입회조사를 선행토록 함

○ 대웅전 기단과 계단은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시공시 해체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정토록 함

○ 광장부지는 계획대로 시행하되, 지형 절성토와 배수계획을 수립토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추진 시 현지 입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7명, 부결 1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4

24.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창고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주변에 창고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창고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

○ 지 정 일 : 1967. 06. 23.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장락동 84-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1m

○ 사업내용 : 창고시설 건립

- 사업면적 : 2,496㎡
- 건축면적(연면적) : 300.00㎡(300.00㎡)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077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7명, 보류 1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5

25. 서울 흥인지문 주변 판매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서울 흥인지문」주변에 판매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판매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최고높이 23m 이하(평지붕), 27m 이하(경사지붕)”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동승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9-57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5m

○ 사업내용 : 판매시설(동대문종합시장 신관동) 증축

구분	기존	증축 후	비고
대지면적	2,183.80㎡	2,193.10㎡	+9.30㎡

구분	기존	증축 후	비고
건축면적	973.65㎡	1,307.78㎡	+334.13㎡
연면적	7,679.37㎡	13,233.38㎡	+5,554.01㎡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층수 및 높이	지하2층, 지상5층 30.75m	지하2층, 지상9층 35.9m	

라. 보존정책과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7명, 부결 1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6

26.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요사채 건립공사

가. 제안사항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주변 요사채 건립사업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주변 요사채 건립사업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396

○ 지 정 일 : 1963. 01. 21.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강릉 보현사 요사채 건립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39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5m이격

○ 주요내용 : 요사채 건립

- 건축면적 : 72.9㎡

- 양식 : 민도리, 팔작지붕, 한식 동기와잇기, 자연석기단

- 규모 : 정면 5칸×측면 2칸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7

27. 정읍 피향정 보호구역 정비

가. 제안사항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 정읍시 소재 보물 「정읍 피향정」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 정읍시 소재 보물 「정읍 피향정」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읍시장

(2) 대상문화재 : 정읍 피향정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2-2

○ 지 정 일 : 1963. 01. 21.

(3) 사업내용

○ 사 업 명 : 정읍 피향정 보호구역 정비

○ 사업범위 : 보호구역 정비(설계)

○ 주요내용

- 철거공사

・가로등 2EA, 석재볼라드 2EA, 화강석의자 5EA, 견치석 석출 152m 막돌경계석 30m, 합성목재울타리 437m(292경간)

- 이식공사

・소나무 25주(13주 외부반출), 배롱나무 12주

- 식재공사

· 소나무 8주, 오죽 50주, 느티나무 3주, 매화나무 8주, 배롱나무 15주, 산철쭉 280주, 창포 860본

- 시설물공사

· 가로등 2EA, 볼라드 2EA, 등의자 8EA, 경계석 25m, 목재울타리 292경간, 석축쌓기 152m

- 포장공사

· 자연석포장 14㎡, 면고르기 730㎡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017.02.16)

○ 조경시설

- 피향정 정자 주변을 위요하고 있는 담장 및 경관저해 전신주

· 연못 경관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도로변을 제외한 남쪽, 서쪽 담장 철거 필요

· 정자에서 주요 경관저해 요인이 되는 서쪽면 전신주의 우회 또는 지중화 필요

· 담장철거 후 서쪽면 표고차 조정 위해 단차형 전통 석축 및 돌계단(石階) 설치

- 연못 호안석 견치석 쌓기 철거 및 경관저해 합성수지 울타리 부분철거

· 현 일본식 석축쌓기(견치석) 철거 후 가운데 섬과 동일한 전통 축조방식(막돌 허튼층 수직 쌓기)으로 복구 필요

· 연못 주변 안전 보호책(울타리)은 전통성, 경관성을 저해하므로 적정한 대안 검토 필요

- 전통경관에 부조화 되는 볼라드, 조명등, 평의자 등의 철거 및 보강

· 볼라드의 경우 조명등이 매립된 의장물로 검토

· 야간경관 안전성, 이용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조명시설 추가

· 전통공간에 부합되는 목재 평의자 또는 평상 등으로 교체, 보강

○ 조경식재

- 피향정 정자 앞마당 주변 식재

·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완만한 마운딩 후 소나무 군락식재로 배후 경관숲 조성

· 소나무숲 전면부에 계절감 확보 위해 배롱나무, 매화나무, 창포 등으로 보강

· 인접 마을, 전신주 등의 부분차폐 효과를 위해 오죽 등으로 띠 녹지 완충식재

- 연못 섬(中島)

· 고사한 느티나무의 추가 보식 등으로 녹음경관 확보

· 여름철 연꽃 경관을 보강할 수 있는 배롱나무(꽃피는 시기 : 7-8월) 군락식재

마. 의결사항

○ 보류

- 설계내용 보완 후 재심의

· 외부 담장까지 철거

· 나무 식재는 전문가 자문 의견 긍정 검토

· 인제책은 훼손부분만 수리

- 석축은 원안대로 정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안건번호 건축 2017-04-028

28. 여수 타루비 및 동령소갈비 보존처리

가. 제안사항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여수 타루비」 및 동령소갈비 보존처리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여수 타루비」 및 동령소갈비 보존처리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여수 타루비, 동령소갈비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0

○ 지 정 일 : 1998. 12. 04.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여수 타루비 및 동령소갈비 보존처리

○ 사업범위 : 보호구역 정비(설계)

○ 주요내용

- 보존처리 과정

・과학적조사→건식세척→습식세척→몰탈제거→균열부 및 몰탈제거부 수지충전→석재 강화처리→색맞춤

- 보존처리 방침

・과학적 조사(Portable XRF, X선 회절분석기, 적외선열화상 촬영, 풍화훼손지도 작성)통한 현 상태 진단

・석재 표면의 먼지 및 이물질, 이끼류 등을 걷어내는 건식세척을 실시하며

건식세척으로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 및 변색부분, 틈새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습식세척을 실시

- 비좌 하부에 묻어있는 강회다짐 오염물질 제거
- 박리,박락부분이 심한 비좌는 수지접합과 충전을 실시하며 상대적으로 훼손이 덜한 비신과 비개석은 수지충전을 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수지접합 병행
- 석재 전체에 강화제 도포 및 주입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비석 보호
- 수지접합 부위와 충전 부위에 대한 고색가칠을 실시하여 기존 비석과 이질감이 없도록 처리
- 타루비 탑신의 비문에 적색계통의 색상, 과학적조사를 통한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보수여부를 판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호각 빗물 유입 방지 보수정비 등 전문가 자문 후 사업 추진
- 당해 비석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자문의견에 따라 최소한의 개입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04-029

29.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기도지사

(2) 대상문화재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5호「용주사대웅보전」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龍珠寺 大雄寶殿)

○ 소유자(관리자) : 용주사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용주로 136)

○ 조성연대 : 1790년(정조 14년)

○ 지정면적 : 275㎡(보호구역 25,389㎡)

○ 양　　식 : 목구조, 다포계,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16.12.16)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12.16	대상문화재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03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조 사 자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보물

3. 문화재명칭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龍珠寺 大雄寶殿)[1]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용주사는 화산(華山)을 배산하여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좌측편 화산에는 '화성 융릉과 건릉(華城 隆陵과 健陵)'[2]이 있는데, 떨어진 거리는 1Km 정도이다.

용주사가 위치한 수원읍은 예로부터 능(陵)이나 원(園)의 자리로 잡아둔 세 곳[3] 중 하나에 속한다. 윤선도가 신라 말 풍수지리의 대가 도선(道善)이 용주사가 위치한 형국을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으로 천년에 한번 만날까 하는 명당이다'라고 가리킨 곳이라 소개한 바 있다.

용주사는 현륭원의 능침사찰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찰이다. 현륭원의 전배와 기신재·기일재의 제수 물자 조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까운 거리와 평탄한 곳에 자리 잡았다.

용주사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창건한 원당으로 이 지역의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꼽힌다.

5. 연혁·유래 및 특징 : 용주사는 정조가 즉위 이후에 부친을 추모하는 일과 명예회복을 위해 1789년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소(영우원)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그 이름을 원륭원이라 한 후 명복을 빌고 능을 수호하기 위해 지은 능침사찰(陵寢寺刹)[4]이다. 정조14년(1790)부터 짓기 시작하여 1795년에 정조가 「불설부모은중경판(佛說父母恩重經板)」과 「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를 하사하고 그 다음해(1796년)에 공사를 완성하였다. 창건

1)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5호(1983년 지정)

2) 사적 제206호(1970년 지정),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莊祖)와 그의 아내 경의왕후(敬懿王后)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묘(墓). 조선 영조 38년(1762)에 사도세자를 경기도 양주군 배봉(拜峯)에 장사지낸 후 묘를 수은묘(垂恩墓)라 하였다가 정조 즉위년(1776)에 영우원(永祐園)으로 고쳤고, 동왕 13년(1789)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로 옮긴 후 현륭원으로 고쳤음. 광무 3년(1899) 사도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면서 융릉(隆陵)으로 개칭하였음.

3) 두 곳은 여주의 영릉(寧陵, 효종과 인선왕후의 쌍릉)과 구리시 원릉(元陵, 영조와 정순왕후 능)

4) 원당 종류 중 하나로 왕릉과 가까운 곳에 창건하거나 중창하여 능침(왕과 왕비 능)을 관리·수호하고 능침 주인의 명복을 빌며 능에 제사를 지낼 때 물자를 제공하는 사찰로 조선 초기까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중기 이후는 그 사례가 드물다.

에서부터 완공에 이르는 공사일정, 공사 관련인물(도편수, 화원, 조각화원, 시주자 등), 금액, 건물 규모 등에 대한 기록[5]이 상세히 잘 남아있어 사료적가치가 크다. 창건 당시에는 대웅보전[6], 선당(禪堂), 승당(僧堂), 천보루(天保樓), 좌우종루, 칠성각, 향로전, 제각(祭閣, 1950년 소실)[7], 외삼문, 좌우익랑, 동문(東門), 용가(舂家, 쇠북소리간)를 지었다. 지금은 주불전 대웅보전의 서쪽으로는 천불전(天佛殿)·시방칠등각(十方七燈閣)·범종각이, 동쪽으로는 호성전(護聖殿, 1988년 신축)·지장전(1894년 신축, 1985년 중수)·법고각이 있다. 대웅보전 앞쪽은 좌·우에 있는 나유타료(那由他寮)·만수리실(曼殊利室)과 맞은편 천보루(天保樓)가 중정을 에워싸고 있다. 나유타료 뒤쪽에는 효행기념관(관음전)과 종무소가, 천보루 앞으로는 세존사리탑·삼문과 동·서측행랑이 있다. 천보루와 삼문 사이의 서쪽에는 종각 불음각(佛音閣, 1985년 신축)과 요사채 서림당(瑞林堂)이 자리한다. 삼문 전방 맨 앞에는 사천왕문(1977년 신축)[8]·효행박물관이, 대웅보전 후방 맨 뒤에는 중앙선원 선원각(璿源閣, 1986년 신축)이 놓여있다. 전체적인 배치유형은 산지중정식으로 삼문의 좌·우행랑은 세조연간 왕실원찰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회랑[9]으로 능사의 면모를 읽게 한다. 산지중정식은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일반화된 유형으로 창건(18세기) 때 모습이라 여겨진다.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다. 주간은 정·측면 모두 정칸이 퇴칸보다 간살이 넓다.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불단은 후열 평주선상의 뒤쪽 정칸에 고주를 세워 후불벽을 설치하고 그 앞에 안치했다. 전열 내주를 감주하고 고주를 세워 이주시킨 평면구성은 17~18세기의 건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유형이다.[10] 불단위에는 후불탱화[11]를 배경으로 중앙에 주불인 석가모니좌

---

5) 『정조실록』 13년,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上,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 下, 『궁궐지(宮闕誌)』,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下, 용주사 창건 권선문(勸善文), 대웅보전 상량문, 화산용주사 상량문, 대웅보전 닫집 원문(原文), 용주사불복장봉안문(龍珠寺佛復藏奉安文), 용주사제신장문(龍珠寺祭神將文), 대시주진신안서(大施主璡紳案序) 등

6) 중수(1900년,1965년,1987년), 개금불사(1979년), 해체보수(2011년)

7) 한국전쟁 때 소실된 후 서고를 지었다가 다시 지금의 호성전(護聖殿)을 건립함.

8) 일주문으로 지었다가 사청왕문으로 변경됐음.

9) 남랑(南廊), 장랑(長廊), 중행랑(中行廊), 횡랑(橫廊), 외랑(外廊) 등으로 불리기도 함.

상을 모시고 좌·우에 각각 아미타불과 약사살을 협시불로 봉안하였다. 불단 위의 닫집은 보궁형으로 하단에 연봉을 단 헛기둥을 풍련으로 장식하였다. 닫집 내부는 구름, 용, 봉, 비천상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장엄이 돋보인다.

기단은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정면은 화강암 장대석으로 높게 축조하고, 측면과 배면은 외벌대로 쌓았다. 기단 바닥은 원당의 격을 고려한 듯 전바닥이다. 정면 기단 가운데에 운문을 부조한 원호형 소맷돌을 갖춘 화강암 오름계단이 나 있고 그 좌우로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계단의 좌측 화단에는 괘불대를 두고 그 뒤편 석축 위 좌·우측에는 노주석 2기를 두었다. 노주석은 야간법회 시 불을 밝히거나 숯을 피워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석물로 현재 드물게 남아있는데, 조선 중후기 때 것이 대부분으로 창건 당시 것으로 보인다.[12]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방형 초석 위에 원형 활주가 서 있다. 초석은 원형 주좌를 둔 방형의 비교적 고급스러운 정평초석으로 이는 원당의 격을 갖추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기둥 모두 민흘림을 둔 원주다.

정면 3칸에는 4분합굽널 솟을금강저 꽃살 들문을 달고, 좌·우측면 건물 정면 쪽 협칸과 배면 정칸에는 외여닫이 굽널띠살문을 달았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의 다포형식으로 주간포는 정·배면과 양측면 정칸에는 2구씩, 양측면 협칸에는 1구씩 배열되어 있다. 첨차는 마구리 단부는 직절하고 그 밑면은 교두형으로 깍고 윗면에는 공안이 없다. 주심의 내·외출목과 내2출목 장여 위와 외2출목과 내3출목 대첨차 위에 가첨장여를 둔 것과 귀포와 양쪽 주간포에 주심 소첨·대첨 대신 출목부 병첨처럼 주심좌우대가 연장된 주장첨차를 사용한 것은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주장첨차[13]는 일반적으로 주심전체에 사용하는데 비해 귀포에만 사용한 예는 극히 드문바 귀한 모습이

---

10) 17~18세기 다포 팔작지붕 :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제292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보물 제396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 등이 있음.

11)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호(1972년 지정)

12) 김제 금산사(1기, 보물 제22호), 경산 환성사(2기), 문경 봉암사(2기), 문경 김용사(2기), 문경 대승사(2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07호) 등이 있음.

13) 경복궁 근정전·사정문, 마곡사 대광보전, 능가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전, 불회사 대웅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음.

다. 살미는 4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는 상하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 외부 살미의 1·2·3제공은 휘어 오른 앙서 마구리는 사절하고 그 하부 내단을 연봉으로 조식처리 하였다. 4제공은 연봉익공형으로 그 위 보머리는 봉두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과는 달리 정면의 정칸 양측 기둥의 상부에 바깥은 용두로, 안쪽은 용미로 조식한 안초공으로 하였다. 이는 정칸을 특별히 화려하게 장식하여 상위 공간임을 강조하여 그 위용을 더해 주기 위함으로 18세기 건물[14]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수법이다. 내부 살미는 연화로 초각한 살미를 중첩한 운궁으로 구성했다. 귀포는 귀평방 위에 이방을 얹어 제공을 연봉앙서형으로 하고 귀한대 상부에는 눈에 띄게 큰 용두로 장식하였다.

공포구성의 전체적인 수법은 18세기 건물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부가구는 1고주 5량 가로 대량은 고주 위에서 두 부재가 이어지는 합보형식이다. 대량 위에는 충량이 좌·우측면 각각 2개씩 평주에서 휘어져 올라서 걸쳐 있다. 충량의 몸과 마구리를 용신과 용두로 장식하였는데, 닫집 쪽의 마구리는 용두를 생략하여 불단의 존엄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다. 용두로 장식한 충량은 조선중후기 건물[15]에서 주로 나타난다. 충량 위에는 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있다.

천장은 중도리와 내목도리,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를 우물반자로 처리하고 범자문, 운학문, 연화문 등 문양을 그려 넣어 전체가 화려하다. 수려한 닫집과 천장의 여러 종류 문양 등으로 어우러진 불전 내부 장엄의 극치는 불국토로 여겨지게 한다.

단청은 금단청을 주로 하여 금모로·모로 단청을 시채하였다.

옥개부는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지붕마루는 양성 바름을 하고, 용마루 좌·우에 취두를 두고, 내림마루에는 용두로 장식했다. 양성 바름과 취두·용두는 궁궐 전

14)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 1718년 중창),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1764년),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 1754년),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 1799년 중건), 경주 불국사 대웅전(보물 제1744호, 1765년 중창), 남해 용문사 대웅전(보물 제1849호, 1773년 중창) 등

15) 강화 전등사 대웅전(보물 제178호, 1621년 중창), 부안 내소사대웅보전(보물 제291호, 1633년 중창), 남해 용문사 대웅전(보물 제1849호, 1773년 중창) 등

각, 왕릉 정자각 등의 권위적인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사찰 건축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원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6.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용주사 대웅전은 창건 당시인 18세기 다포 팔작건물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구성과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의 수려한 장엄 수법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능침사찰 면모를 읽게 하는 행랑, 제각, 기단, 초석, 지붕 마루구성 등은 고유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주사 대웅전은 경기도 지역의 사찰건축 중에서 창건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18세기의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12.16	대상문화재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04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연혁

화성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縣隆園)의 능침사찰(陵寢寺刹)로서 1790년에 건립하였다. 능침사찰이란 제사 시 물자를 준비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이며, 능침을 수호하고 명복을 빌게 하는 일종의 원당사찰(願堂寺刹)이다.

사도세자의 묘소는 본래 양주군 배봉산에 있었으며 명칭은 '수은묘(垂恩廟)' 였다. 정조는 즉위한 해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莊獻)'이라 하고 수은묘의 봉호(封號)를 '영우원(永祐園)'이라 하였으나(정조 즉위년 3월 20일) 1789년에 수원 화산으로 천릉하고 나서 '현륭원(顯隆園)'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대한제국 광무 3년(1899, 고종 36)에 사도세자가 장조(莊祖)로 추증되면서 다시 융릉(隆陵)으로 개칭된다.

천릉은 1789년 7월 11일에 금성위 박명원(朴明源, 영조의 셋째사위)이 발의하여 결정되었다. 공사는 그해 7월 20일에 시작하여 10월 16일에 공역을 끝내고 안원전(安園奠)을 거행하였다.(정조 13, 기유, 10월 16일)

현륭원 조성이 끝나자 바로 용주사((造泡寺) 건립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논의가 시작된다. 공사는 공명첩을 발급하고 권선문을 돌려 공사비를 마련한 후에 시작하고 관청에서는 최소한의 감독관을 파견하고 모든 공사 집행은 사판승단에 위임토록 하였다. (「현륭원원소도감의궤」 사례편 10월 17일조)

용주사의 공사 일정은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1790년 2월 19일 開基 (開國三百十九年, 二月 十九日 午時), 定礎 3월 21 巳時 , 立柱 4월 10일 未時 , 上樑 4월 15일 巳時 , 造佛 8월 16일 , 點眼 9월 29일 이라고 적고 있다. (朝鮮寺刹史料 上 , 47~48, 1972)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 15일에 상량을 하고, 마무리 건축 공사를 진행하며 불상을 조성하고 9월 29일에 점안하여 불상을 봉안한 것을 볼 때 이 무

렵 공역이 끝난 것으로 보여 진다.
정조는 그해 10월 6일, 용주사 건립을 끝내고 공역에 관련된 지방관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라고 명하고 있다. 창건 당시 건립된 건물의 규모를 「일성록(日省錄)」(정조 14년 경술, 10월 6일)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각 6칸, 중문 3개, 내담장 16칸, 법당 9칸, 칠성각 6칸, 중문 1개, 내담장 10칸, 향로전 12칸, 중문 1개, 바깥중문 1개, 내담장 11칸, 선당 39칸, 승당 39칸, 누각 15칸, 삼문과 익랑 17칸, 용가 2칸, 중문 3개, 바깥담장 212칸, 새로 판 석정 50칸, 연지 1곳 이상 145칸, 중문 9개, 담장 249칸

龍珠寺祭閣六間中門三內墻垣十六間法堂九間七星閣六間中門一內墻垣十間香爐殿十二間中間一外中門一內墻垣十一間禪堂三十九間僧堂三十九間樓閣十五間三門翼廊竝十七間舂家二間中門三外墻垣二百十二間新鑿石井五十間淵池一處以上一百四十五間中門九墻垣二百四十九間

공사의 내용과 규모로 볼 때 용주사의 공역은 7개월여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용주사는 정조의 발원에 의해 건립된 만큼 왕실 및 관청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하에 전국의 승려가 화주승(化主僧) 및 승장(僧匠)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팔로읍진여경각궁조전시주록(八路邑鎭與京各宮曹廛施主錄)’에는 용주사 창건을 위해 시주한 곳의 명단과 액수, 재물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朝鮮寺刹史料 上, 42~47), ‘대시주진신안(大施主縉紳案)은 큰 시주를 한 96명의 고위관료들의 관직과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朝鮮寺刹史料 上, 54~58) 또한 ’용주사건축시각도화주승(龍珠寺建築時各道化主僧)‘에는 용주사 창건을 위해 각 지방의 책임을 맡은 승려들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8도도화주(八道都化主)와 부화주(副化主) 밑에 경기·전라 , 충청·경상, 강원·함경, 황해· 평안 등 양도도화주(兩道都化主)를 두고, 그 밑에 각 도별로 책임을 맡은 화주승(化主僧)을 정하였다.(朝鮮寺刹史料 上, 58~60)

이처럼 용주사 창건에는 중앙 및 지방 관청과 관료, 각궁방, 서울의 각 가게, 전국의 사찰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거두어드린 돈이 도합 87,505량 1전이다. 이중 57,388량 8전은 건물을 짓는데 쓰고, 28,116량 3전은 사찰에 소유할 전답을 매수하였고, 2,000량은 8도도화주 여비로 사용하였다. 재원의 출처와 액수를 살펴보면 各道營邑의 시주금이 52,574량 7전으로 모금 총액의 60%에 달하며, 各道村閭寺刹, 京各司 순이다. 재화의 85%가 官府로부터 化入된 것을 볼 때 용주사 공사가 관영공사에 준한 국가적인 營繕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사체계에서도 용주사는 입지의 선정과 계획, 監董은 官府에서 파견된 관원이 전담하였다. 공사의 都看役은 이인찰방(利仁察訪) 조윤식(趙允植)이다. 조윤식은 이 공사 직전의 수원읍치 이전과 新邑造成工事에서 監董으로 일했으며, 현륭원 조성에서도 감동으로 일했다. 조윤식은 경험이 풍부한 공사전문가로서 입지의 선정에서부터 참여하여 계획도형의 작성 등 용주사 영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분야별 감동관과 편수들은 日省錄, 10월 6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木手 간역(看役)은 통정대부 김도성(金道成)이고, 佛幀을 주관하여 감동한 사람은 그 시대 대표적 화가인 단원 김홍도(金弘道)이다 (‘本寺諸般書畵造作等諸人芳啣’에는 김홍도가 大雄殿後佛幀三世如來體幀 畵員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성록에는 監董으로 기록함). 그 밖에도 현판(懸板),목역(木役),부석(浮石),치석(治石), 토역(土役),공역(工役), 석물(石物), 번와(燔瓦) 등 모든 공사 마다 세분하여 감독관을 정하였다.

용주사 건축공사에서 목공사와 단청 및 탱화 등은 모두 승장(僧匠)이 맡아 하고, 석장(石匠)·야장(冶匠)·이장(泥匠)·가칠장·소목장, 각수 편수는 서울의 장인들이 맡았다.
건축공사는 5인의 도편수가 5개 건물을 각각 책임을 맡아 동시에 건립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각 건물의 도편수는 대웅전 문언(文彦,장흥 천관사), 천보루 쾌성(快

性, 영천 은해사), 선당 운명(雲明, 간성 건봉사), 승당 의섭(義涉, 보현사), 칠성각 운영(雲荥, 죽산 칠장사)이다. 5인의 도편수 소속 사찰은 전라, 강원, 경상, 충청, 평안도로 전국 각 사찰에서 뛰어난 승장들이 공역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 도편수 문언(快性)은 이 공사 이전에 곡성 태안사 대웅전 중창공사에 도편수로 참여하였고, 쾌성(快性)은 4년 후 화성성역에 참여한 경상도 목수 8명 중 한명이다. 당시 그를 지명하여 공사에 참여시키라는 공문이 경상감영에 하달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갖춘 승장이었다.
단청과 탱화화원들도 각지에서 차출된 승장이며 김홍도가 탱화 감동으로 참여한 것은 그만큼 용주사 건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조는 공사가 끝나고 용주사 수승(首僧)에게 법호(法號)를 내린다. 칭호는 '호종연교 보혜정각 엄정비니 원융법계 총지제방 대법사 겸 팔로도승통 경기도 수원부 화산 용주사 도총섭(護宗演敎 普慧正覺 嚴淨毗尼 圓融法戒 摠持諸方 大法師 兼 八路都僧統 京畿道 水原府 花山 龍珠寺 都摠攝)'이다. 당시는 팔로도승원(八路都僧院)을 두어 전국의 사찰을 통제하였으며, 도총섭은 전국5규정소만 두었다. 용주사는 중창되자마자 광주 봉은사, 양주 봉선사, 남한산 개원사 , 북한산 중흥사와 함께 5규정소 중 하나가 되어 전라도 지역 사찰을 관할하였다. 용주사 총섭은 정조가 원행을 할 경우 예에 따라 대황교에 군막을 설치하고 하사받은 별군장 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도열하여 임금을 맞이할 정도였다. 용주사 승려들의 군장은 총융청에서 지급하였고, 이후 장용영(壯勇營) 외영에 소속되어 포 쏘는 법을 시험하고 인근의 독성(禿城)을 수성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처럼 용주사는 창건 이래 최고의 사격을 유지하였으며, 왕실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사찰 중수에 공명첩을 발급받았다. 고종 16년(1879)에도 공명첩 300장을 발급받아 건물들을 수리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종 16년, 11월 15일)

일제강점기에는 1902년 원흥사를 대법산(大法山)으로 하고 전국 16개 사찰을 중법산으로 했을 때 용주사는 경기남도를 총괄하는 사찰이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본말사제도가 도입되어 31본산을 정할 때 그 하나로 경기도 남부지역을 담

당하는 본사였다. 1955년 교구본산제가 시행되는 사찰정화 뒤에는 조계종 제2교구 본사가 되어 현재는 80여개소의 사암을 관할하고 있다.

2. 입지와 배치

용주사는 현륭원의 능침사찰로서 현륭원과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화산 기슭, 이곳은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창건된 갈항사 옛터라고 한다. 병자호란 때 소실되어 폐사된 그곳에 정조는 현륭원의 능침사찰을 건립한다.

창건시 건물의 규모는 제각 6칸, 법당 9칸, 칠성각 6칸, 향로전 12칸, 선당 39칸, 승당 39칸, 누각 15칸, 삼문과 익랑 17칸, 용가 2칸 등 모두 145칸이다. 중문 9개이며, 담장은 바깥담장 212칸, 3곳의 내담장이 37칸으로 모두 249칸이다. 또한 마당에는 새로 판 석정 50칸, 연지 1곳이 있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보고서'와 '대웅보전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는 창건당시 건물규모를 '조선사찰사료'의 기록을 따라 左右從樓 4칸, 외삼문 3칸, 좌우익랑 3칸, 동문 9칸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일성록(정조 14년, 10월 6일)과 비교해 볼 때** ... 樓閣十五間三門翼廊竝十七間春家二間中門三外墻垣二百十二間新鑿石井五十間淵池一處以上一百四十五間中門九墻垣二百四十九間 **의 오기로 보여 진다.**)

현재의 배치와 비교하여 창건당시의 전각구성을 살펴보면 법당(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맞은편 남쪽에 천보루를 배치하고, 천보루 좌우에 승당과 선당이 위치하여 대웅전 앞 마당을 중정처럼 구성하였다. 승당과 선당은 각각 39칸 규모이며 口자형 건물이다. 대웅전 앞마당 좌우에 승당과 선당을 배치한 모습은 조선 후기 봉은사의 배치구조와 유사하다. 봉은사는 성종의 능인 선릉과 중종의 능인 정릉의 능침사찰이며, 선종의 수사찰이다. 대웅전 앞마당 좌우로 대규모 승당과 선당을 배치하는 이와 같은 구성은 선종사찰이며 능침사찰의 배치 특성으로 보여 진다. 용주사 승당과 선당은 지금 나유타로와 만수리실로 불리운다.

창건시 대웅전 좌측으로 향로전과 칠성각, 우측으로 제각이 있었다. 제각은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셨던 건물이다. 창건시 건물 기록에서도 가장 앞에 법당 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다. 제각은 6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였다. 주위에 내담장을 둘러서 독립적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담장에는 정면과 좌우, 모두 세곳에 중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각은 원찰(願刹)로서의 용주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이다.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서고를 지었다가 1988년에 호성전을 건립하였다. 호성전 앞에는 1981년에 세운 부모은중경탑이 자리한다. 향로전과 칠성각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각각 내담장을 둘러서 공간이 구획되어 있었으며, 향로전은 외중문, 내중문 두 개의 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은 그 자리에 천불전과 시방칠등각이 세워져 있다.

천보루 앞에는 삼문과 좌우 익랑이 앞마당을 형성한다. 중앙에 삼문을 두고 좌우로 각각 7칸의 익랑이 있다. 모두 17칸으로 기록과 현재의 모습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용주사는 남북중심축 위에 대웅전-천보루-삼문을 정연하게 배치하고, 승당과 선당, 좌우 익랑을 똑같은 규모의 동일한 형태로 좌우 대칭되게 배치함으로써 기하학적 구성을 하고 있다.
삼문 앞에 1977년 일주문(현 천왕문)을 건립하고, 80년대 이후부터 선원각 불음각, 서림당, 효행기념관, 효행수련원 등 많은 건물이 주변에 들어섰지만 삼문과 좌우 익랑, 대웅보전·천불전·승방과 선당으로 이루어진 중심영역은 창건 때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 건축현황과 특징

용주사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에 맞추어 지형을 4단으로 나누어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제1단에는 삼문과 5층 석탑이 있는 천보루 앞마당이고 제2단에는 천보루와 승당과 선당이 대웅보전 앞 중정을 형성한다. 제 3단에 대웅보전이 있고 그 서쪽에 향로전과 칠성각이 있었고 동쪽에 제각이 있었다. 진입에서부터 대웅보전 앞

마당까지 계단과 석축을 설치하여 공간의 위계성과 깊이감을 부여하고 있다.
대웅보전은 높은 장대석 기단 위에 남향하고 있다. 장대석 석축과 직각으로 양측에 소맷돌이 놓인 7개의 계단을 오르면 동서로 긴 장대석 석축기단이 있다. 지형의 고저차를 따라 전면은 3벌대이고 , 측면과 배면은 외벌대이다.
초석은 원형주좌가 있는 방형초석으로 높은 격식을 갖추었다.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식 건물이다. 주칸은 정면, 측면 모두 어칸의 간살을 길게 잡았고, 내진고주는 측면의 뒤쪽 평주 보다 320mm 후퇴시켜 보다 넓게 예불공간을 확보하였다.
내진 고주 사이에 후불벽을 구성한 후 그 앞에 3단의 수미단을 놓고 삼세불상을 모셨다. 석가모니를 주존불로 하고 약사여래와 아미타불을 협시불로 모셨다. 후불벽에는 후불탱화가 있는데 창건당시의 불화가 아니고 근대기에 새롭게 조성된 작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건 때 모셨던 三佛會幀은 단원 김홍도가 監董 또는 화원으로 참여했다고 전해지나 일성록에는 監董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웅보전 오른쪽 뒤쪽 벽에 있는 삼장보살도는 18세기 후반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화승들의 작품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5호로 지정되었다.

대웅보전의 기둥은 모두 약간의 민흘림이 있는 원기둥이다. 우주가 평주보다 굵은 부재를 사용했으며 귀솟음을 주었다. 기단 모서리 4곳에 초석을 놓고 활주를 세워 추녀를 받쳤다.
공포는 다포식 구조로 측면 협칸에만 1구씩의 간포를 배치하고 그 외의 주칸에는 모두 2구씩의 간포를 배치하였다. 내4출목 외3출목의 구조이며 살미의 외단은 초제공,이제공, 3제공은 앙서형으로 초각하였고, 4제공 살미는 수서형이다. 주간포 5제공의 살미 외단은 봉두가 초각되어 있다. 제공의 내단부는 연꽃이 피는 과정을 초각하였다. 전면 어칸 양쪽 기둥 머리에는 창방과 직교하여 안초공이 있다. 안초공의 외부는 용두와 연꽃을 내부는 용꼬리를 초각하였다. 전반적으로 공포의 구조와 초각수법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내부 가구는 1고주 5량가이다.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걸고 종보 위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는다. 대들보는 고주 위에서 배면 평주에서 건너지른 퇴

보와 합보형태로 처리하였다. 대들보 상부에 보와 직교하여 2개의 충량을 걸었는데 전면 2개의 충량 마구리는 용두로 장식하였다. 충량의 중간지점에 동자주를 세워 측면 외기도리를 지지한다. 천장은 중도리와 외기도리로 둘러싼 가운데 부분은 높고 그 둘레 부분은 낮은 층단반자로 구성했다. 불상 상부 닫집은 亞자형으로 이단 돌출시킨 형태로서 낙양과 비룡, 화염과 구름, 극락조 비천상으로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이 사용된 형식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용마루 양 끝단에는 취두를 설치하였고, 내림마루 끝단에는 용두를 설치하였다. 지붕마루에는 양성바름이 되어 있다. 양성바름(양성도회)은 궁궐의 전각이나 관아 건축 등 권위 있는 건물에 주로 쓰는 수법이다. 용주사 대웅보전은 2011~2012년 해체 보수하면서 일제강점기 사진을 근거로 지붕마루를 양성바르기 하였다.

대웅전의 단청은 금단청으로 창방 이상의 모든 부재면은 다양한 단청문양으로 도채되어 있고, 기둥은 석간주칠을 하였다. 외부 단청은 1993년에 보수하면서 개칠한 모습이다. 반면에 내부 단청은 퇴색이 심하고 균열과 박락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지만 초창시의 단청으로 추정하고 있으며(해체수리공사보고서, 지정 신청보고서). 포벽화과 대웅보전 내 상단 천장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일부 목판화는 창건당시의 화격을 보여준다. 단청화원들은 전국에서 차출된 승장들이었다, 대웅전 단청 도편수는 민관(敏寬)이었으며, 건축의 도편수는 장흥 천관사 승려인 문언(文彦)으로 당시 뛰어난 승장이었다.

대웅전은 1879년 (고종실록 16권,11월 15일), 1900년(成龍海總攝 중수), 1931년 (姜大蓮 주지 중수), 1965년 (全觀應 주지)에 수리한 기록이 있으나(용주사 사적비) 정확한 중수 내용은 알 수 없다. 1985년에도 중수가 있었으며, 1993년 외부단청, 2011~2012년 평방이상 해체수리공사가 있었다. 창건 이후 여러 번의 보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 외에 창건시의 모습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자의견

1.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縣隆園)의 능침사찰(陵寢寺刹)로서 제사시 물자를 준비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이며, 능침을 수호하고 명복을 빌게 하는 일종의 원당사찰(願堂寺刹)이다. 용주사의 건립은 왕실의 공사발주, 관부로부터 재원조달, 계획부터 공사감독까지 관 주도로 이루어진 관영공사로서 국가적인 영선사업이었다. 용주사는 단순히 현륭원(縣隆園)의 능침사찰로서 의미 뿐 아니라 뒤이어 이루어진 화성행궁 중건, 화성 축성 등 일련의 과정과 연계해 볼 때 용주사의 창건은 왕권 강화에 대한 정조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성을 갖는다.

2. 용주사 공사 과정은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顯隆園儀軌, 朝鮮寺刹史料 등 관련 사료를 통하여 공사내용, 공사재원, 공사집행 및 공사인력 등 공사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3. 창건 시 기록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용주사는 삼문과 좌우 익랑, 천보루, 승당과 선당, 대웅전으로 구성된 중심영역은 처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북중심축 위에 대웅전-천보루-삼문을 정연하게 배치하고, 승당과 선당, 좌우 익랑을 똑같은 규모의 동일한 형태로 좌우 대칭되게 배치 하였다. 용주사의 이와 같은 배치 및 공간구성은 조선 후기 선종사찰이며 능침사찰의 특성을 보여주고 중요한 요소이다.

4. 대웅전은 용주사의 주불전이다. 여러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을 제외하고 초창 때의 모습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의 건물로 그 시대 일반적인 불전의 형식을 취하였다. 장대석 기단과 원형주좌를 둔 방형초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은 능침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보여준다. 공포의 구법과 초각수법은 초창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불단과 닫집의 문양과 조각, 안초공과 귀한대 · 충량의 용조각, 단청 등도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불전을 장엄하고 있다. 대웅전 건축의 도편수는 문언(文彦, 장흥 천관사 승

려)이고, 단청 도편수는 민관(敏寬)으로 당대 최고의 승장들이 건축하였다. 대웅전은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갖추고 있어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용주사의 건축공사는 이인찰방 조윤식의 총감독하에 마스터플랜에 따라 5인의 도편수가 5개 건물을 각각 책임을 맡아 동시에 건립되었다. 따라서 현재 초창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삼문과 행각, 천보루, 승방과 선당,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중심영역은 능침사찰과 선종사찰로서 용주사의 성격과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추후 사적 지정 등을 통해 면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12.16	대상문화재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문화재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03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ㅇ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용주사는 화성 융건릉이 있는 화산(華山)을 배산하여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용주사가 위치한 수원읍은 예로부터 여주의 영릉과 구리시 원릉과 함께 능이나 원의 자리로 잡아둔 길지 중 하나에 속한다. 윤선도가 신라 말 풍수지리의 대가 도선(道善)이 용주사가 위치한 형국을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으로 천년에 한번 만날까 하는 명당이다'라고 가리킨 곳이라 소개한 바 있다.

용주사는 현륭원의 능침사찰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찰이다. 현륭원의 전배와 기신재·기일재의 제수 물자 조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까운 거리와 평탄한 곳에 자리 잡았다.

창건 당시에는 대웅보전, 선당(禪堂), 승당(僧堂), 천보루(天保樓), 좌우종루, 칠성각, 향로전, 제각(祭閣), 외삼문, 좌우익랑, 동문(東門), 용가(舂家)가 있었으나, 지금은 주불전 대웅보전의 서쪽으로 천불전(天佛殿), 시방칠등각(十方七燈閣), 범종각이 있고, 동쪽으로는 1988년 신축된 호성전(護聖殿), 1894년 신축된 지장전, 법고각이 있다. 대웅보전 앞쪽은 좌·우에 있는 나유타료(那由他寮)·만수리실(曼殊利室)과 맞은편 천보루(天保樓)가 중정을 에워싸고 있다. 나유타료 뒤쪽에는 효행기념관(관음전)과 종무소가, 천보루 앞으로는 세존사리탑·삼문과 동·서측행랑이 있다. 천보루와 삼문 사이의 서쪽에는 종각 불음각(佛音閣)과 요사채인 서림당(瑞林堂)이 자리한다. 삼문 전방 맨 앞에는 1977년 신축된 사천왕문이 있고, 효행박물관이 있다. 대웅보전 후방 맨 뒤에는 중앙선원 선원각(璿源閣)이 놓여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사동중정형에 좌·우행랑을 갖춘 왕실원찰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

ㅇ 연혁·유래 및 특징

정조는 1789년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소(영우원)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원륭원'이라 하였다.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능침사찰로 정조14년(1790)부터 그 다음해(1796년)에 공사를 완성하였다. 1795년에 정조가 「불설부모은중경판(佛說父母恩重經板)」과 「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를 하사하고 창건에서부터 완공에 이르는 공사일정, 공사 관련인물(도편수, 화원,

조각화원, 시주자 등), 금액, 건물 규모 등에 대한 기록[16]이 상세히 잘 남아있어 사료적가치가 크다.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정면, 측면 모두 어칸이 퇴칸보다 주간이 넓다. 내부는 조선후기에 많이 보이듯이 고주를 후열 평주선상의 뒤쪽에 세워 불단을 놓고 후불벽을 설치하였다. 부처님은 중앙에 주불인 석가모니좌상을 모시고 좌·우에 각각 아미타불과 약사살을 협시불로 봉안하였다. 닫집은 보궁형으로 하단에 연봉을 단 달동자를 풍련으로 장식하였다. 닫집 내부는 구름, 용, 봉, 비천상 등으로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기단은 지형에 따라 정면은 화강암 장대석으로 높게 축조하고, 측면과 배면은 외벌대로 쌓았다. 기단 바닥은 전돌로 마감하였다. 정면에는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소맷돌을 곡선형으로 하고 운문을 부조하여 격을 높이고 있다. 계단 좌우로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좌측 화단에는 괘불대를 두고 그 뒤편 석축 위 좌·우측에는 노주석 2기를 두었다.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방형 초석 위에 원형 활주로 추녀를 받치고 있다. 초석은 원형 주좌를 둔 방형이고, 기둥은 모두 민흘림 두리기둥이다.

창호는 정면 3칸에 사분합 꽃살 들문을 달고, 좌·우측면 건물 정면 쪽 협칸과 배면 정칸에는 외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의 다포형식으로 주간포는 정면, 배면 그리고 양측면 정칸에 2구씩, 양측면 협칸에 1구씩 배열하였다. 첨차는 마구리 단부는 직절하고 그 밑면은 교두형으로 깍고 윗면에는 공안이 없다. 주심의 내·외출목과 내2출목 장여 위와 외2출목과 내3출목 대첨차 위에 가첨장여를 둔 것과 귀포와 양쪽 주간포에 주심 소첨·대첨 대신 출목부 병첨처럼 주심좌우대가 연장된 주장첨차를 사용한 것은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살미는 4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는 상하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 외부 살미의 1·2·3제공은 앙서형이고, 마구리는 사절하고 그 하부 내단을 연봉으로 처리하였

16) 『정조실록』 13년,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上,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 下, 『궁궐지(宮闕誌)』,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下, 용주사 창건 권선문(勸善文), 대웅보전 상량문, 화산용주사 상량문, 대웅보전 닫집 원문(原文), 용주사불복장봉안문(龍珠寺佛復藏奉安文), 용주사제신장문(龍珠寺祭神將文), 대시주진신안서(大施主璡紳案序) 등

다. 4제공은 연봉익공형으로 그 위 보머리는 봉두로 장식되어 있다. 정면의 정칸 양측 기둥의 상부에는 안초공으로 용을 장식하였다. 내부 살미는 연화로 초각한 살미를 중첩한 운궁으로 구성했다. 귀포는 귀평방 위에 이방을 얹어 제공을 연봉앙서형으로 하고 귀한대 상부에는 눈에 띄게 큰 용두로 장식하였다.

공포구성의 전체적인 수법은 18세기 건물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부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대량은 고주 위에서 두 부재가 이어지는 합보형식이다. 대량 위에는 충량이 좌·우측면 각각 2개씩 걸쳐있고, 충량은 용으로 장식하였다. 충량 위에는 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있다.

천장은 중도리와 내목도리,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를 우물반자로 처리하고 범자문, 운학문, 연화문 등 문양을 그려 넣었다. 단청은 금단청을 주로 하여 금모로·모로 단청을 시채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지붕마루는 양성 바름을 하고, 용마루 좌·우에 취두를 두고, 내림마루에는 용두로 장식했다.

ㅇ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용주사 대웅전의 건립은 건축 도편수는 문언(文彦)과 단청 도편수는 민관(敏寬)으로 당대 최고의 승장들이 창건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공포의 수법은 초창시의 시대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장대석 기단과 원형주좌를 둔 방형초석, 지붕의 양성마루와 취두, 용두 등은 능침사찰로서의 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단과 닫집의 문양과 조각 그리고 내부의 단청은 초창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용주사 대웅전은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크고 창건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안건번호 건축 2017-04-030

30. 건조물문화재 국보 지정 추진계획 재검토

가. 제안사항

보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보의 지정 신청·추천 받은 보물 중 국보지정 절차 추진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따라 보물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일괄 신청받아 개별 조사 후 국보로 지정하고자 함.

※ '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3.16) : 보류

-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

다. 추진경과

○ '16.10월 :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학회에 신청과 추천토록 협조

○ '16.12월 : 신청 및 추천 완료

- 건조물문화재(보물)의 국보 승격 신청 현황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유형	시기	추천기관	비고
제147호	밀양 영남루	1963.01.21	누각	조선시대	경남도	'14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시 부결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1963.01.21	전각	조선시대	인천시	
제178호	강화 전등사 대웅전	1963.01.21	전각	조선시대	인천시	
제186호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1963.01.21	탑	통일신라	미술사학회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유형	시기	추천기관	비고
제189호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1963.01.21	전탑	통일신라	조계종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1964.09.03	모전탑	고려시대	강원도	'13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시 부결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1966.02.28	전각	조선시대	부산시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1980.06.11	누각	조선시대	조계종	
제799호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1984.11.30	탑	고려시대	충남도	
제910호	경주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	1987.03.09	당간	통일신라	경북도	
제1461호	부산 범어사 조계문	2006.02.07	전각	조선시대	부산시	

* 국보 중 누각·탑·전탑·당간·전각에 해당하는 문화재 : 44개

라. 향후계획

○ 신청 대상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기존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와 비교·검토하여 현지조사 대상 선정 : '17년 제3차 건축분과위원회의

* 건축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국보 지정가치가 미흡한 대상에 대하여 추천기관에 회신

○ 현지조사 대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 조사 후 개별 검토 및 심의 : '17. 4월 ~ 7월

마. 의결사항

○ 보류

-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별첨] 1. 국보 지정 추천 대상

2. 참고자료(국보 설명자료)

[별첨] 1. 국보 지정 신청 대상

<table>
<tr><td>지정번호</td><td>보물 제161호</td><td>문화재명</td><td colspan="2">강화 정수사 법당
(江華 淨水寺 法堂)</td></tr>
<tr><td>지정일</td><td>1963.01.21</td><td>유형분류</td><td colspan="2">사찰건축</td></tr>
<tr><td>지정
신청
사유</td><td colspan="3"><일반현황>
정수사는 강화도의 주봉을 이루는 마니산 동측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고찰이다. 639년(신라 선덕여왕 8년) 회정선사(懷正禪師)가 창건하고 정수사(精修寺)라 이름지었다. 그후 1423년(조선 세종 5년) 중창을 하고 3년 뒤인 1426년 함허화상(涵虛和尙)이 중영(重營)할 때에 법당 서쪽에 맑은 물이 솟아남을 보고 정수사(淨水寺)라 개명하였다고 한다. 1848년(헌종 14년)에는 비구니 법진(法眞), 만흥(萬興)등이 중수(重修)를 하였고, 1883년(고종 20년)에 비구니 근훈(根訓)이 수선(修繕)을 하였다고 한다.

1957년 법당 보수공사 시 발견한 상량문에 의하면 초창이 1423년이고 그 후 다섯 번에 걸쳐 중창을 한 기록이 있다. 이로 총 6번에 걸친 중창으로 그 연대는 1423년(세종 5년) 제1중창, 1458년(세조 4년) 제2중창, 1552년(명종 7년) 제3중창, 1586년(선조 19년) 제4중창, 1667(현종 8년) 제5중창, 1689년(숙종 15년) 제6중창이다.

이 절의 법당은 세종 5년(1423)에 중창된 조선(朝鮮) 초기(初期)의 주심포식(柱心包式) 건축이다. 이 법당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집으로, 현재의 정면 툇마루 부분은 후대에 가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본래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집이었다고 생각된다.

공포(공包)의 짜임새는 정면에서 보다 후면 공포에서 보다 더 조선초기의 주심포 수법을 볼 수 있다. 즉 기둥 윗몸에서 비교적 긴 헛 첨차를 내고, 이 끝에 소로(小累)를 놓아 주상(柱上)에 놓인 살미첨차(山彌첨遮)를 받치고 있는 것이다.

정수사 법당의 건축을 살펴보면 정면만 장대석으로 3단의 석축을 쌓은 기단 위에 운두가 높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정면3칸에 측면3칸 건물의 전면에 1칸의 툇마루형식의 툇칸을 두어서 전면의 박공이 후면보다 더 길게 뻗어나와 지붕 측면이 비대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건축은 비슷한 시기의 건축인 개목사 원통전과 그 모습이 같다고 할 것이다. 창호의 특징은 전면으로 중앙문의 4짝이 꽃살문으로 꽃병에 색색이 연화와 모란이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꽂혀있는 모습인데,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외부로 출목된 첨차는 양단에 연봉과 꽃줄기를 투각(透刻)으로 조각하여 보기 힘든 매우 특수한 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창방위의 공포사이에 화반 또한 같은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선초기에 조성된 모습이 아니라 후기의 중창때에 퇴칸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것</td></tr>
</table>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배면의 공포로 외1출목의 전형적인 주심포계의 형식을 취한 구조로 주두밑에 헛첨차를 놓고 익공형 살미와 보를 얹혀 놓았는데, 이들 부재 사이를 띄어 놓고 소로를 놓은 점이 익공형식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첨차는 고식(古式)에서 잘보이고 있는 쌍S자형(연속연화무늬)으로 만들었다. **<지정신청사유-인천시>** 정수사의 창건연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법당의 조선시대 중창기록이 전하고 있어 건물의 연혁과 현황 조성 시기는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1957년과 2003년 해체보수 과정에서 확인된 1667년(현종8)과 1689년(숙종15)의 상량문의 내용에 따르면 1423년(세종5) 중창 당시 현 법당건물이 세워졌으며, 이후 6차례의 중수와 중창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3년에 실시된 목재연륜연대측정에서는 상량문에 기록되지 않은 1524년(중종19)에 한 번의 공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때의 퇴량과 불단 등 다수의 부재가 확인되어 몇 차례의 중창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의 목부재가 상당부분 남아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정수사 법당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한국건축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건축물의 건립시기인 1423년의 중창부터 2003년 해체보수시까지 한 차례의 전소도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었으며, 그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전기 化主와 木手의 이름이 확인되어 工匠史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건축물을 화려하게 莊嚴하는 꽃살문이 단순히 문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공포와 내부 반자에까지 연속되고 있어, 조선시대 불교건축의 장엄이 건축물 전체에 일관되어 표현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특히, 이러한 장엄이 1585년 중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셋째, 해체수리과정에서 거의 모든 부재에 대한 목재연륜연대조사가 진행되어 조선전기의 부재가 상당부분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건축물의 현황이 조선전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전면 퇴칸의 증축이 16세기 중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어 불교건축사에 있어 금당이 실내공간을 가지면서 확장되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수사 법당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15세기부터 현재까지 연혁이 명확하고 불교건축사적 측면과 공장사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장엄이 매우 뛰어나 예술적 가치 역시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국보로 승격하여 한국건축사에 있어 하나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정번호	보물 제178호	문화재명	강화 전등사 대웅전 (江華 傳燈寺 大雄殿)
지정일	1963.01.21	유형분류	사찰건축

지정 신청 사유

<일반현황>

이 사찰은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아도화상(阿道和尙)이 개산한 진종사라는 사찰에서 유래하였는데 1855년(철종 6년) 규영화주(奎瑩化主)에 의해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대웅전의 기단은 지형에 따라 동측은 높고 서측은 낮은 자연석허튼층쌓기를 하였는데, 초석은 부근의 산석(山石)을 이용하여 기둥이 놓이는 자리만 평평하게 다듬어서 사용하였다.

기둥은 배흘림을 가지고 있고, 정면에는 모두 3분합빗살문을 달아 들어열개로 하여 부연평고대에서 내려온 들쇠로 걸리도록 하였다. 내부는 고주가 없는 공간으로 마루는 보방향의 장귀틀과 도리방향으로 동귀틀을 짜맞춘 우물마루이다. 천장은 내목도리사이에 우물천장을 하고 이를 경계로 기둥쪽으로 빗반자를 짜서 여기에 봉황, 물고기 등을 조각하여 조선 중·후기의 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량의 끝부분은 용머리 장식으로 하였다.

포작은 다포계 형식으로 내4출목, 외2출목으로 4면에의 주심사이에는 2개의 공간포가 있는데, 특징은 동서의 측면의 공포배열이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수법으로 전체적인 공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등분포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둥 위에 주심포가 올라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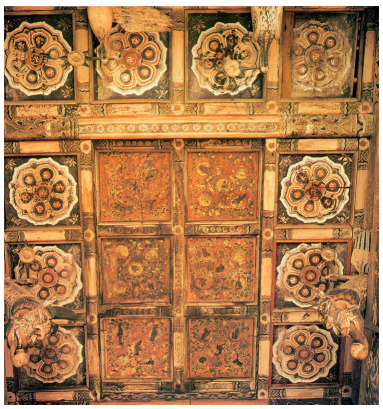
살미의 세부적인 수법을 보면 외부의 2출목은 앙서형이고 최상단의 살미는 수서형으로 반곡점(反曲點)이 심한 초형(草形)으로 하였다. 보뺄목 끝의 장식은 귀면으로 하였고, 공간포의 위에는 보뺄목 자리에 당초각을 한 받침재가 있어 처마도리를 받치고 있다.

내부살미의 끝은 대들보와 충량에서만 초화문이 조각된 살미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두형으로 하였으며, 첨차의 마구리는 거의 직절(直切)을 하였고 밑을 둥그스름하게 깍았고, 상부는 수평으로 하여 W자의 매우 강한 공안을 조각하였다. 귀기둥위의 평방을 받치고 있는 창방뺄목은 기존의 쌍S자형에서 발달한 연봉형초화문양(蓮峯形草花紋樣)으로 조각하였고 상부의 외목도리의 뺄목이 겹치는 부분에서 조상(彫像)이 추녀를 받치고 있는 이 건물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인물상으로 방탕한 나부상(裸婦像)이라고 하여 설화와 내력이 있는데, 이는 도편수의 순정을 배반하고 맡긴 돈을 챙겨 달아난 주모가 벌받는 형상이라고도 하여 무거운 지붕의 하중을 받는 모습을 조각하였다.

건물의 귀솟음과 안쏠림이 모두 존재하여 기둥의 배흘림과 함께 목조건축의 조형요소가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지정신청사유-인천시>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에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역의 성립은 고려대의 일로 추정된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종 46년(1259) 삼랑성에 假闕을 설치하고 원종 5년(1264) 가궐에 佛頂道場을



	설치하였다. 삼랑성의 가궐은 원종 11년(1270) 환도하기까지 38년간 유지되는데 이 가궐이 전등사의 전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세기에 들어서는 충렬왕의 원비였던 정화궁주의 원찰로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사격을 유지하였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 왕실의 위패와 진영을 전등사로 옮겨 보존할 수 있었다. 이후 1605년과 1614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광해군 7년(1615)에 재건을 시작하여 13년(1621)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현종과 숙종대에 들어 鼎足山史庫를 전등사 경내에 마련하면서부터 사고 수호사찰로 왕실의 각별한 보호아래 사격을 유지하였다. 지금의 전등사 대웅전은 1621년 중창 당시 세워진 건축물로 이후 몇 차례의 수리가 진행되었음에도 중창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전등사 대웅전은 건축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다. 우선 건축적 측면을 살펴보면 공포가 기둥의 위치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배치되고, 포의 살미에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서 기록상의 1621년의 중창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전환되는 광해군대 건축편년의 기준으로 전등사 대웅전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귀공포에 조각상을 배치하는 독특한 의장법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사례로서, 해외의 경우 일본 나라의 唐招提寺나 교토의 東寺 등 오래된 사찰에서 확인되고 있어 상당히 고식 수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고식 수법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이 전등사 대웅전이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고려의 江都시기 가궐터였다는 점과 조선시대 정족산사고의 수호사찰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의 중요 산성인 삼랑성의 중심이 전등사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산성수호사찰 중에서도 고려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전등사가 유일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1621년이라는 건축연대와 현황이 일치하고 있어 건축편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귀공포의 조각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동아시아 건축의 맥락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장요소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왕실과의 관계, 산성과 사고의 수호사찰이라는 점은 역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 사찰의 중심법당을 국보로 승격하여 추후 그 가치를 더욱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정번호	보물 제186호	문화재명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慶州 南山 茸長寺谷 三層石塔)
지정일	1963.01.21	유형분류	탑

지정 신청 사유

<일반현황>

경주 남산 서쪽 산중턱에는 용장사터가 남아 있다. 용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경덕왕(재위 742-765) 대에는 유가종(瑜伽宗)의 대덕(大德) 대현(大賢)이 살았던 곳이다. 《삼국유사》에는 그가 용장사에 머물렀던 시절의 일화를 적은 기사가 있다. 대현이 이 절에 있는 장육상 주위를 돌며 예배할 때면 불상도 그를 따라 얼굴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곳은 또한 조선 초기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출가한 후 이곳에서 금오신화(金鰲神話)를 썼던 장소이기도 하다.

석탑의 지대석은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면이 되는 바위면을 파내어 그 위에 석재를 얹고 있다. 지대석 위에 놓인 중석은 네 모서리에 우주를 새기고 면석 가운데에는 탱주를 새겨 놓았는데, 각 면은 두 장의 돌로 한 면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그 접합부분이 분리되어 탱주와 면석 사이가 벌어진 상태이다. 상층기단은 4장의 돌을 맞대어 마련하였다. 기단위에는 갑석이 놓여 있는데 아래쪽에는 한단의 부연, 위쪽에는 2단의 고임대가 형성되어 있다. 2단의 고임대는 아랫단은 각을 없앤 호형(弧形)으로 새기고, 윗단은 직각으로 각을 살린 형태이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이 각각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층탑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네 귀퉁이에 우주가 있으며, 2층으로 탑신이 올라가면서 그 부피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옥개석은 각 층의 층급받침이 4단을 이루고 있으며, 추녀는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전각 윗부분에서 사절(斜截)됨으로써 경쾌한 반전을 이루고 있다. 옥개석 윗부분의 낙수면 정상부에는 1단의 고임대가 있어 각각 그 위층의 옥신을 받게 함으로써 일반 석탑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하대신라에는 용장사곡삼층석탑과 같이 돌출한 암석을 이용하거나, 혹은 전망이 트인 산봉우리 위에 탑을 건립하는 양상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조탑방식은 특수한 형식으로서 이처럼 산봉우리 전체를 탑의 기단으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불탑의 무한적집(無限積集) 또는 공덕적취(功德積聚) 등의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한 불탑 자체를 우주의 축(軸)으로 생각하는 신앙형태이다. 그리고 기단은 불교의 우주관으로 설명되는 수미산(須彌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유형의 이형탑은 신라 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산천비보(山川裨補)사상과도 연관시켜 고찰할 수 있다. 지리산 법계사(法界寺)삼층석탑, 충북 영동의 영국사(寧國寺) 망탑봉(望塔峰)삼층석탑과 같이 고려시대에

	비보사상을 기반으로 조성된 석탑들은 이 용장사석탑을 필두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석탑은 완전히 무너져 있던 것을 1922년에 재건하였고, 최근에도 해체수리되었는데, 2층옥신 윗면에서 15.2cm×3.1cm의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현재 석탑은 석재가 풍화로 닳은 가운데 상륜부가 소실되었고, 기단 갑석과 중층 옥개석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기단부 중석 한 면이 금이 간 상태이다. **<지정신청사유-미술사학회>** 경주 남산은 신라인의 불국토 사상을 현실에 반영한 장소로 계곡마다 많은 탑상(塔像)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불탑은 현재까지 약 100여기가 확인되어 가히 남산을 불탑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사명이 전승되며 유존하는 탑은 창림사지 삼층석탑과 용장사지 삼층석탑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용장사지 삼층석탑은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하층기단으로 삼고, 상층기단과 3층의 탑신으로 구성탑으로 각부의 비례가 적절하고 기단의 결구수법과 탑신의 조각은 8세기 말 정형기 석탑의 양식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탑이 위치한 곳은 금당과 별개의 공간으로 사방이 트인 암봉 위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같은 탑들은 늠비봉 오층석탑, 비파곡 삼층석탑, 지암곡 삼층석탑 등 경주 남산에 위치해 있는데 9세기 이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9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단층기단 석탑 및 소위 망봉탑의 시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탑파사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각별하다. 셋째, 탑이 위치한 용장사지는 경주 남산 내에서 사명(寺名)이 전승되어 역사성이 인정되는 사례인 점, 또한 본 석탑은 남산의 자연경관을 극대화하여 탑이 위치한 장소를 신라문화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해도 무방할 만큼의 타당한 조영성(造營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정번호	보물 제189호	문화재명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江華 傳燈寺 大雄殿)
지정일	1963.01.21	유형분류	사찰건축

지정 신청 사유

<일반현황>

송림사는 사찰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진흥왕대와 애장왕대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진흥왕대 창건설은 565년(진흥왕 26) 진(陳)에서 귀국한 명관(明觀)이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창건했다는 설이며, 다른 설은 애장왕(재위 800-809) 때 창건하였다는 설로, 이때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위해 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 탑의 기단부는 화강암으로 축조하였다. 먼저 얕은 흙기단을 쌓고 그 주위를 돌며, 여러 장의 장대석(長大石)을 놓았다. 장대석의 각 모서리에는 우주(隅柱)를 새기고, 중앙에는 5주(柱)의 탱주(撐柱)를 새김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러 장의 화강석을 써서 탑신 고임대를 놓았다.

탑신부는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한 변이 27cm , 높이가 6.2cm의 크기이다. 이 벽돌을 한 장 또는 그것을 반(半)으로 나눈 크기의 벽돌을 사용하여 탑을 올렸으며, 사용한 벽돌 표면에는 문양이 들어가 있지 않다.

5층의 옥개부는 초층부터 9단·7단·7단·6단·4단의 층급받침을 두었으며, 옥신의 낙수면 층단 수는 11단·9단·8단·7단·5단을 형성하고 있다. 상륜부는 4.51m의 규모로 각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1959년에 해체복원시 원형을 모조(模造)한 것이다. 노반의 신부(身部)는 벽돌로 쌓은 후 동(銅)으로 갑석형 조형하였다. 갑석형 동제 노반의 각 모서리에는 풍령(風鈴)을 달아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복발, 앙화, 보륜, 용차, 보주가 차례로 목심(木心) 찰주(擦柱)에 꽂혀있다.

1959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현재 7.3m인 이 전탑의 기단 석축이 본래는 폭 4.5m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초층탑신과 2·3층 옥개, 복발 등에서 각각 유물이 발견되었다. 초층탑신의 남쪽 면에는 개설되었던 감실을 폐쇄시킨 흔적이 있는데, 그 안에 조선시대 목불(木佛)이 있었다. 그리고 2층 옥개부에는 금동방형사리기(金銅方形舍利器)와 녹색유리제사리병(綠色琉璃製舍利甁), 유리잔, 나무모양 장식구, 금동제 원륜(圓輪) 2개, 옥류(玉類) 1련(蓮), 은환(銀環) 15개, 향목(香木) 7편, 목실(木實) 등의 사리장엄구가 있었고, 복발에는 향목이 든 상감청자원형합(象嵌青瓷圓型盒)이 있었다. 이상 탑 안에 있던 일괄 유물은 보물 제325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중이다.

현재 이 탑은 1959년 해체복원 시 이루어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몇 기 남지 않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탑으로 그 존재 가치가 높다.

	<지정신청사유-조계종> 송림사 오층전탑에서 주목되는 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에 진행된 기단부 및 주변 보수정비 시 기단부의 윤곽이 파악되었다. 자연석을 이용해 지반을 구축한 시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석축 형태의 뒷채움이 확인되어, 비록 약간의 보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본래 현재와 같은 양식의 기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1959년 해체·보수 시 초층 탑신 등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초층 탑신의 감실은 미륵사지 석탑, 분황사 석탑의 전통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존 전탑의 감실과도 궤를 같이 한다. 내부에는 모두 6구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전탑 감실에 불상을 봉안하는 것은 중국 전탑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양국의 전탑이 지닌 성격을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송림사 전탑 초층탑신에 개설된 감실은 불사리 신앙의 결정체로서 한국 전탑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오나전한 상륜부를 구비하고 있다. 전탑의 상면에는 벽돌을 사용해 3단으로 구축해 노반을 삼고 있다. 복발, 앙화, 보륜과 용차 및 보주가 순차적으로 꽂혀 있어, 보개와 수연은 결실된 상태이다. 상륜부는 중심에 목주를 놓고, 외부를 판으로 감싼 형식인데, 모든 부재는 청동제로 제작되었다. 1959년 4월, 2014년에 각각 진행되었던 수리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전탑 상륜부에는 건탑 당시 양식이 그대로 존재하며 전통을 따르고 있다. 넷째, 사리장엄구가 출토된 현존 유일의 전탑이다. 출토된 금제전각형 사리구는 감은사지 출토 사리장엄과 유사성이 있고, 내부 봉안된 유리잔은 정창원 소장품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는 삼국시대로부터 이어진 신라문화의 국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송림사 전탑은 통일신라 전탑의 한국적 독자성과 전탑으로서의 희귀성을 동시에 가진다. 또한 초층탑신 감실의 불상 봉안은 석탑의 양식을 도입하고 불사리 신앙을 계승한느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 부분적으로 신재가 보충되었지만, 완전한 상륜부를 구비하고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마땅히 국보로 승격해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번호	보물 제434호	문화재명	부산 범어사 대웅전 (釜山 梵魚寺 大雄殿)
지정일	1966.02.28	유형분류	사찰건축

지정 신청 사유

<일반현황>

이 사찰의 창건 년대는 의상대사(義相大師)와 관련한 2가지 설이 있는데 2가지 모두 신빙성이 적다. 다만 범어사사지(梵魚寺寺誌)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興德王)10년(835) 당시 범어사에는 미륵전(彌勒殿), 대웅전(大雄殿), 비로전(毘盧殿), 천왕신전(天王神殿) 등의 여러 건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이미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웅전(大雄殿)은 범어사의 주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맞배집이다. 기단(基壇)은 자연지세를 따라 전면은 높고 후면은 낮게 처리하였으며 전면에는 면석(面石)과 갑석(甲石)을 갖추었고 양측면과 배면에서는 장대석 외벌대 기단으로 마감하였는데 기단의 동측 끝 면석에 康熙十九年(1680) 이라는 명문기록(銘文記錄)이 새겨져 있어 임진왜란 이후 중건(重建)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단의 중앙에 놓인 양측 계단 소맷돌의 조각수법은 통도사 대웅전의 금강계단(金剛戒壇)과 유사하다.

초석은 자연석 주초(柱礎)와 원형의 층단주좌(層段柱座)가 있는 2가지 형태로 그 위에 8개의 평주와 6개의 고주로 그랭이질하여 축부를 구성하고 건물 내부에는 불벽(佛壁)을 두어 전면(前面) 평주상(平柱上)의 대들보는 내부 불벽 고주에 결구되었으며 양측벽의 내목도리와 중도리 하부에는 전형 다포계 맞배집의 가구법의 특징인 2중장여를 사용하였다.

범어사 대웅전은 사역내에 남아있는 석탑 등 석조물의 조성년대와 연혁에서 기술한 중수 및 보수년대를 종합해 볼 때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대웅전 종도리에 있는 상량문(上樑文)과 암막새에서 확인된 순치십오년(順治十五年) 무술(戊戌)(1658)의 명문(銘文), 기단면석(基壇面石)의 각자(刻字), 주심장혀 뺄목에 있는 각종 묵서들의 기록으로 보아 17세기에 중건된 다포맞배집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아진다.

대웅전의 창호는 전면, 측면, 후면의 사면에 모두 설치되었다. 정면 어칸은 사분합문(四分閤門)이며 좌우 협칸은 삼분합문(三分閤門)으로 궁판을 가진 교살창호로 되어 있다. 양측면에서는 앞쪽으로 외짝의 세살문창호를 달았고 북측면에서는 북서협칸에 양판문을 달아 괘불의 출입에 사용하고 있으며 남측면 후면은 선대만 있고 회벽처리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으로 구성된 다포계의 수법을 따르고 있는데 맞배집의 특성상 전후면에만 포작이 짜여졌고 좌우 협칸에 2조(組), 어칸에는 3조(組)의 포작을 배치하였는데 포간격이 거의 같아 어칸은 협칸보다 공포 하나의 간격만큼 길다. 제공은 초제공에서 5제공까지 있다. 외부의 1, 2, 3제공은 뱃바닥을 평평하게 굴리면서 위로 솟아있는 앙서형(仰舌形)으로 마구리를 직절시켰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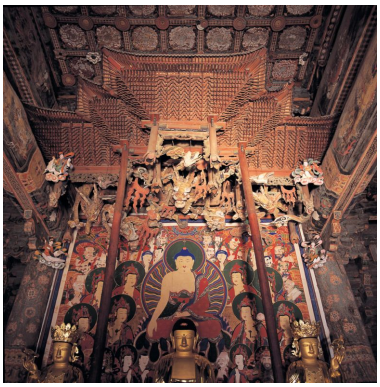
4제공은 새부리처럼 뾰족해졌고 5제공은 운공(雲工)으로 외목도리의 굴림을 방지하도록 덩굴을 초각한 형상이다. 내부 제공은 4제공까지 교두형이고 5제공은 대량하부에서는 보아지형이며 공간포작(空間包作)에서는 삼분두형(三分頭形)으로 처리하였다. 귀포에서는 주심에서 도리방향으로 전면에서와 같은 3개의 앙서가 빠져나와 있다.

<지정신청사유-부산광역시>

『범어사창건사적기』에 따르면 범어사는 835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의 하나였고, 당시에는 왜구를 진압하는 비보사찰로서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대웅전이란 천지간의 큰 영웅인 석가여래를 모셔놓은 집이라는 뜻으로, 본존불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미래에 성불하여 부처가 될 미래불인 미륵보살과 오른쪽에 정광여래로서 과거불인 제화갈라보살 등 삼세불이 봉안되어 있다. 지금의 대웅전은 1614년 묘전화상 건립한 것으로 1713년 홍보화상이 중수한 것이다. 내부의 불단과 닷집, 삼존불상은 묘전화상이 중건할 때 조성된 것이다.

건물 양식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평면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기단은 불국사와 같은 가구식 기단으로, 면석에 동백 잎이 조각·장식된 보기 드문 예이다. 아울러 기단의 동쪽 끝 면석에 '康熙十九年'이라고 새겨져 있어 대웅전 기단의 건립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범어사 대웅전은 규모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니나 아담한 交窓, 기둥 위의 두공과 첨자 구조의 섬세함과 아름다움, 정교하고 섬세한 닫집과 불단 조각 등 조선 중기 불교건축의 아름다움과 조선시대 목조공예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정번호	보물 제662호	문화재명	완주 화암사 우화루 (完州 花巖寺 雨花樓)
지정일	1980.06.11.	유형분류	사찰건축

지정 신청 사유

<일반현황>

우화루는 화암사 입구에 있는 2층 누각이다. 이 건물은 앞에서 보면 누각의 구조지만 안마당에서는 단층처럼 보인다. 경사진 땅에 석축을 쌓고 건물을 세우면서 전면 축대 앞에 누하주(樓下柱)를 세우고 후면은 축대 위에 낮게 동바리 기둥을 받쳐 마당과 비슷한 높이로 마루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장귀틀과 동귀틀로 층마루를 짜고 그 위에 다시 두리기둥을 세워 누각을 구성했는데 귀틀의 뺄목이 기둥 중심에서 한 자에서 석 자 정도 불규칙하게 빠져 나와 있다.

이 건물은 전면 3칸, 측면 3칸으로 외형은 9칸이지만 내부는 칸막이 없이 단일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전면에만 내진고주를 두어 대들보와 종보를 받게 하고 중정을 향한 두 칸은 통칸으로 처리하였다. 자연히 전퇴칸이 형성되는 평면 구조이다.

전면 3칸은 매 칸마다 문꼴을 내고 판문을 달았다. 현재는 내부로 미닫이문이 설치되었으나 본래는 바라지창 형식으로 여닫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 양 측면은 회벽으로 처리하였으며 마당에 면한 배면은 3칸 모두를 완전히 개방하였다.

이 건물은 정유재란 때 극락전과 같이 불탄 것을 1611년에 중건한 것이다. 그후에도 수차례의 중수가 있었는 듯 건물에는 신구(新舊) 부재들이 혼재 되어 있으나 중건시의 모습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공포의 구성은 다포계 형식으로 어칸에 2구, 협칸에 1구의 주간포를 배치했고 각 공포간에는 포벽으로 막았다. 내외 2출목 구조로 초제공과 이제공은 앙서형 쇠서이고 그 위의 3제공은 초각한 운공형이다. 살미의 형태가 초기 다포형식과 같이 강직한 맛은 없으나 쇠서의 길이를 길게 뺀어 간결하게 처리함으로써 세련되고 유연한 맛을 풍긴다. 내부는 살미 끝을 연화초각하여 운공형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시기의 일반적인 수법이다.

가구는 이중보를 갖는 1고주 5량구조이다. 양측면에서는 2개의 고주 위에 종보를 걸어 종도리를 받게 했으나 내부에서는 내진고주와 후면 평주 사이에 가로지른 대들보와 고주와 전면 평주 위의 공포에 결구된 퇴보로서 2개의 양통간(樑通間)를 형성했다.

대들보 위에는 거의 4분변작하여 포대공을 두어 종보와

중도리를 받쳤다. 또한 대들보와 종보 사이에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을 받치고 종보 위에 또 하나의 파련초각한 판대공을 배치하여 마루도리를 받게 한 이중 대공이 특이하다. 종보와 종도리 받침장혀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아 종보 위에는 대공과 함께 솟을장혀가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솟을장혀의 존재는 이 건물에 고식의 수법이 가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대공을 이루고 있는 첨차와 살미의 초각 모습에서도 주심포계의 고식 촛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건물 안에는 현재 여러 개의 작은 편액들이 걸려 있다. 그 중에는 1873년(고종 10)에 상궁 김씨 등을 보내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 민씨의 강령과 국태민안을 기원한 내용이 적혀있어 원찰(願刹)로서 화암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지정신청사유-조계종>

완주 화암사 우화루는 화암사 입구에 있는 맞배지붕의 2층 누락으로, 앞에서 보면 2층 누각의 구조이지만 안쪽에서 보면 단층 건물로 보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외형은 9칸이지만 내부는 칸막이 없이 단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면에 내진고주를 두어 대들보와 종보를 받게 하고 중정을 향한 두 칸은 통칸으로 처리하였다.

공포는 다포계 양식으로 기둥위와 기둥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첨차는 양단부가 약간 경사지며 조각무늬 없이 단순한 형태이고, 제공 역시 간단한데 이러한 단순한 형태는 조선 전기의 수법을 보여준다. 출목은 내외2출목으로 7포작이다.

묵서명과 상량문 등에 따르면 정유8월(1597) 즉, 정유재란 당시 화암사가 치명적 훼손을 당하였으며, 우화루 상량문 등을 통해 1611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숭정2년(1629), 강희50년(1711) 등의 중창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화암사 우화루는 조선 후기 건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이자, 한국의 대표적 누각 건물로 중요하다. 또한 공포 부재의 양식등에서는 조선 초기 양식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 이에 화암사 우화루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 누각이자 조선 목조건축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정번호	보물 제799호	문화재명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公州 麻谷寺 五層石塔)
지정일	1984.11.30.	유형분류	탑

지정 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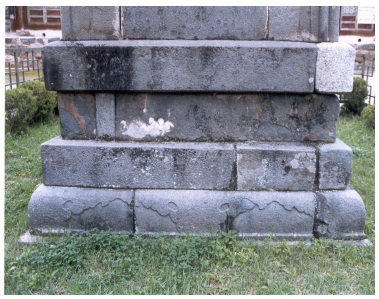
<일반현황>

이 탑은 방형(方形) 기단상(基壇上)에 라마형식(喇麻形式)으로 건립되어 있는 특수한 모양으로 원(元)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말(高麗末)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전세계 셋 중의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이 탑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도괴되어 그 속의 귀중품은 당시에 없어졌다.

기단부는 이중으로 상·하단 기단의 폭이 동일한 반면, 높이가 폭에 비해 높게 조성되어 고준(高峻)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대석은 2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지상에 노출된 상단은 각면 2구씩의 안상이 새겨졌으며, 상면에는 호형 1단의 괴임을 조성한 7매의 석재로 구성되었다. 중석은 정방형의 형태로 높이가 저석보다 3cm정도 밖에 높지 않고, 우주나 탱주 등의 기둥을 모각하지 않은 판석을 맞대어 구성했다. 상면에 놓인 갑석은 4매의 판석을 사용해 전(田)자형으로 조립했다. 상면에는 중석에서 3~6cm 정도 밖에 돌출되지 않은 크기이다. 상대 중석의 가장자리에는 2개의 둥근 몰딩을 한 특이한 형태로, 모서리돌 사이에 면석을 1매씩 끼워 넣었다. 상대갑석 역시 4매의 석재로 구성했는데, 하대 갑석과 같이 전(田)자형으로 조립했다. 부재의 크기는 하대 갑석보다 좀 더 크지만 시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상대 갑석의 상면에는 각각 별석으로 조성된 2단의 탑신받침을 놓았는데 하단이 상단보다 높게 조성했으며, 이 받침 위에 5층탑신을 올렸다. 초층탑신은 네 모서리에서 2단으로 수직모접기 한 우주가 모각되었고, 남면 중앙에는 9cm×19cm 크기의 자물쇠를 5mm정도로 얕게 양각해 문비형을 의도하고 있다. 2층탑신석은 한 돌로 조성되었는데, 양 우주가 모각되었고 탑신의 네 모서리는 안쪽으로 접은 형태로 다른 층의 탑신석과는 다를 뿐 아니라, 석재의 재질도 주종을 이루는 청색계통과는 달리 약간 홍색이 섞인 화강암이다. 그리고 면에는 사방불이 양각되어 있다. 나머지 탑신석은 체감비율에 따라 높이와 폭만 달라졌을 뿐 공통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탑신에는 양우주를 모각했으며, 면석에는 1·2층과는 달리 아무런 조식도 없다.

옥개석은 모두 일석으로 조성했는데, 1·3·4·5층은 공통적으로 낙수면의 경사가 심하며 처마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전각의 반전이 경쾌하고, 하면에 각출된 1단의 몰딩형 옥개받침이 있다. 다만, 5층옥개석만은 낙수면의 길이가 다른 층에 비해 급격히 짧아져 노반석의 하면과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2층옥개석은 높이가 초층에 비해 낮아지고, 낙수면의 경사도 완만하다. 아울러 상면의 탑신받침이 생략되었으며, 추녀마루는 다른 층에 비해 높

	게 조성되었고, 우동의 끝에는 귀꽃을 장식했다. 옥개받침 역시 다른 층과 달리 2단으로 얇게 각출했다. 5층옥개석의 전각에는 2개의 풍탁이 달려있고, 2층옥개석에는 이를 달았던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지정신청사유-충청남도>** 마곡사 오층석탑은 정전(正殿)인 대광보전(大光寶殿) 앞에 있는 석탑이며 세장한 형태에 탑신부에는 사방불이 새겨져 있는 고려시대 전형적인 탑이다. 석탑의 전체높이는 8.67m이며 2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가진 일반적인 석탑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상륜부는 금동제 보탑이란 특이한 부재와 형태를 가져 주목되어 왔음. 청동제 보탑을 통해 고려말기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이러한 양식은 국내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로 알려져 가치를 인정받아 1984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오층석탑은 전체의 무게를 받쳐주는 기단을 2단으로 쌓고 그 위로 5층으로 몸체를 올린 후 머리장식을 올린 형태이며 탑의 2층 몸돌에는 사방으로 부처를 조각해 놓았다. 석탑 위의 금동보탑(일명 풍마등)은 석탑의 최정상부 노반위에 상륜부를 대신하여 장식된 것으로 청동제의 탑형 부재로 금동보탑은 3층의 전각형 건축물의 기단 위에 원통형의 탑신과 원추형 복발(覆鉢), 산개(傘蓋), 보주(寶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1.8m임. 또한 중층기단과 탑신, 복발과 산개, 보주가 분리 가능하도록 별도로 제작하여 조립하였다. 석탑의 지붕돌에는 네 귀퉁이 마다 풍경을 달았던 흔적이 있으며 현재는 5층에 2개의 풍경만이 남아 있고 기록에는 모두 6개의풍경이 달려있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으로 2곳이 훼손되었으며 그때 많은 부장 유물들이 도난당했음. 1972년 석탑해체보수 중 동으로 만든 향로(충남유형문화재 20호)와 문고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마곡사 오층석탑은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건립된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고려 후기(14세기) 원과의 밀접한 문화적인적 교류를 입증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국내 유일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한다.	

지정번호	보물 제910호	문화재명	경주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 (慶州 普門寺址 蓮華文 幢竿支柱)
지정일	1987.03.09.	유형분류	당간

지정 신청 사유

<일반현황>

경주 보문동에 자리잡은 보문사 터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2기(基)의 당간지주가 서 있다. 이중 보물 제910호로 지정된 연화문당간지주는 본래 조성되었던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보문사와는 거리가 있어 이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지주가 보문사에 속했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당간지주는 넓은 논 한가운데 62cm의 간격을 두고 동서로 마주하여 서 있다. 아랫부분이 지면에 매몰되어 완전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앞·뒤·측면 모두 장식이 되어 있으며, 특히 양 측면 상부의 연화문양이 주목된다.

지주의 연화문은 지름 47cm의 규모로 원형의 꽃 자방(子房)을 두고, 그 안에 꽃술을 어자문(魚子紋)으로 음각하였다. 그 바깥에는 연꽃잎을 돋을새김하였는데 꽃잎은 모두 8엽이며, 꽃잎 사이사이로 새로운 꽃잎의 일부를 보이게 하여 복련(複蓮)을 형성하였다.

또 꽃잎 안쪽에도 윤곽에 맞게 돋을새김하여 연꽃의 양감을 한껏 살리고, 꽃잎의 가장자리에는 둥글게 테를 둘러 꽃문양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당간지주에 연화문을 조각하여 장식한 예는 보문동연화문당간지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예이다.

안쪽면은 하부가 좁아지고 바깥면은 상부가 좁아진 구조의 지주는 앞뒤에서 조금 떨어져 바라보면 시각적으로 안정된 조형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은 이 당간지주가 고도의 조형감각과 비례감각이 적용된 세련된 석조물임을 대변해 준다.

지주의 상부 안쪽에는 너비 13cm규모로 큼직하게 간(杆)을 끼우는 간구(杆溝)가 마련되어 있다. 이 지주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당간지주 가운데 가장 특수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지면을 좀 더 파들어가 하부를 드러내면 지주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다른 당간지주와 비교하여 볼 때 연화문을 조각하여 장식하는 예는 이 유물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돌을 다룬 솜씨나 양식이 정교한 특징이 있다.

<지정신청사유-경상북도>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보문사지(사적 제390호 경주 보문동 사지)와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여 있으나, 보문사지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900m 정도 떨어져 있어, 사적으로 지정된 보문사의 것으로 보기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연화문 당간지주 일대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지와 관련된 유구는 깊게 묻혀있어 그 전모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당간지주 역시 노출된 규모로 보아 적어도 2~3m 가까이 지반에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하부의 치석으로 보아 연이어 장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화문 당간지주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문사지 당간지주나 황복사지 당간지주보다는 나중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기의 당간지주의 단아한 치석수법을 계승하면서도 당간지주의 건립이 성행하면서 보이는 완숙한 경지의 우수한 치석 수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각 면을 정교하고 화려하게 깎아 장식화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연화문 당간지주는 8세기 중엽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내면은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까지 외곽을 경사지게 깎아 장식하였는데, 다른 지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수법이다. 연화문 당간지주에 장식된 연화문은 지름이 47cm에 달하며, 연화문을 장식한 예는 연화문 당간지주 이외 충주 미륵대원지 당간지주(비지정)와 고창 흥덕 당간지주(전북 유형문화재 제36호)까지 총 3기만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히 특색있는 것이다. 특히 미륵대원지 당간지주와 흥덕 당간지주는 고려시대의 것으로서 선후 관계에서도 앞설 뿐만 아니라 조각수법 면에서도 연화문 당간지주가 단연 뛰어나, 문화의 전파경로 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경주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치석 수법의 전성기를 대표하고 있어 그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화문을 장식하여 그 형태가 현저히 특이하면서도 양각한 수법이 매우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고, 후대의 연화문 장식 당간지주에 영향을 주어 문화 전파경로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보로 지정된 당간지주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보문사지 연화문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양식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앞으로 연구하고 보존, 관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정번호	보물 제1461호	문화재명	부산 범어사 조계문 (釜山 梵魚寺 曹溪門)
지정일	2006.02.07	유형분류	사찰건축

지정 신청 사유

<일반현황>

경상남도 3대 절 중 하나로 유명한 범어사는『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의상대사가 통일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처음으로 지었다고 한다. 또한 옛날 일본인이 침입했을 때에는 이곳의 승려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싸우기도 했던 곳 가운데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을 세운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조선 광해군 6년(1614)에 묘전화상이 절내 여러 건물을 고쳐 지을 때 함께 세운 것으로 추측한다. 정조 5년(1781)에 백암선사가 현재의 건물로 보수했다.

앞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한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양식이다. 기둥은 높은 돌 위에 짧은 기둥을 세운 것이 특이하며 모든 나무재료들은 단청을 하였다.

범어사 조계문은 모든 법이 하나로 통한다는 법리를 담고 있어 삼해탈문이라고도 부른다. 범어사 조계문은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의 가치와 함께 모든 구성 부재들의 적절한 배치와 결구를 통한 구조적인 합리성 등이 시각적으로 안정된 조형 및 의장성을 돋보이게 한다.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하여 우리나라 일주문 중에서 걸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정신청사유-부산광역시>

범어사 조계문은 기둥이 2개인 일반적인 일주문과 달리 4개의 기둥이 일렬로 늘어선 일주문으로, 지름 1m가 넘는 4개의 높은 석조 기둥 위에 짧은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포의 포작과 많은 중량을 가진 겹처마 지붕을 올려놓음으로써 스스로의 무게로 지탱케 하는 역학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른 사찰의 일주문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옛 목조건물의 건축공법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범어사 조계문은 1614년 묘전화상이 대웅전, 관음전, 나한전 등을 지을 때 함께 창건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알 수 없고, 199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측조사 때 발견된 종도리 묵서명에 의해 1694년(숙종 20)에 중창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3년 해체·보수하였다.

정면 3칸 규모인 범어사 조계문은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의 가치와 함께 구성 부재의 적절한 배치와 구조적인 합리성 등이 시각적으로 안정된 조형 및 의장성을 돋보이게 하고, 한국 전통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우리나라 일주문 중에서 가장 걸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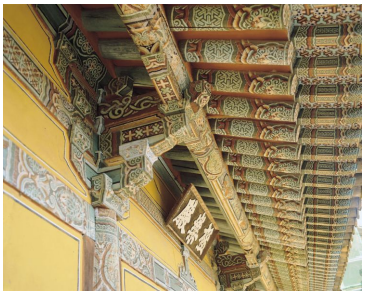
[별첨] 2. 참고자료(국보 설명자료)

지정별	문화재명	지정일	지역	유형분류	제작시기
국보 제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1962.12.20	충북	당간	고려시대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1962.12.20	경북	모전석탑	신라시대
국보 제187호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1977.08.22	경북	모전석탑	통일신라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1962.12.20	전남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1962.12.20	경북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1962.12.20	경북	사찰건축	고려시대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962.12.20	경북	사찰건축	고려시대
국보 제19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1962.12.20	경북	사찰건축	고려시대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1962.12.20	충남	사찰건축	고려시대
국보 제50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	1962.12.20	전남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1962.12.20	경남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1962.12.20	충북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56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	1962.12.20	전남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62호	김제 금산사 미륵전	1962.12.20	전북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1962.12.20	전남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1997.01.01	경남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2009.06.30	경북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	2011.11.28	전북	사찰건축	조선시대
국보 제16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1962.12.20	경북	전탑	통일신라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1962.12.20	서울	탑	조선시대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1962.12.20	충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9호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1962.12.20	충남	탑	백제시대

지정별	문화재명	지정일	지역	유형분류	제작시기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1962.12.20	전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1962.12.20	전북	탑	백제시대
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1962.12.20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1962.12.20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1962.12.20	경남	탑	통일신라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1962.12.20	전남	탑	통일신라
국보 제37호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1962.12.20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38호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	1962.12.20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39호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1962.12.20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1962.12.20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44호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1962.12.20	전남	탑	통일신라
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1962.12.20	강원	탑	고려시대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1962.12.20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86호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1962.12.20	서울	탑	고려시대
국보 제99호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1962.12.20	서울	탑	통일신라
국보 제100호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1962.12.20	서울	탑	고려시대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1962.12.20	서울	탑	통일신라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1962.12.20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1966.02.28	강원	탑	통일신라
국보 제130호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1968.12.19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236호	경주 장항리 서 오층석탑	1987.03.09	경북	탑	통일신라
국보 제289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1997.01.01	전북	탑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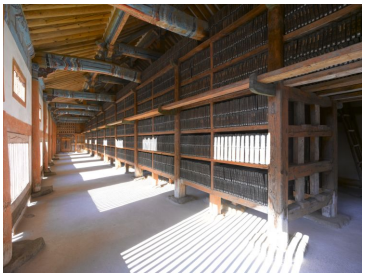
지정번호	국보 제41호	문화재명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淸州 龍頭寺址 鐵幢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당간
연혁	당간은 기단부·간대석·지주부·당간부의 4개 요소로 구성된 조형물이다. 전체적인 조형은 기단부 중앙에 당간을 꽂기 위한 간대석(竿臺石)을 마련하고, 좌·우에는 양 지주를 세운 형태이다. 정상에는 당(幢)을 걸었는데, 주로 야외법회시 활용되었다. 이같은 기능적인 면 외에 부처님의 힘과 자비를 외부에 보임과 동시에 불법의 수호를 상징하던 불가(佛家)의 상징물이었다. 기단과 양 지주는 화강암으로 조성하였지만, 당간은 석제, 목제, 철제 등 다양하게 조성되었다. 현존하는 당간지주의 대부분은 당간부가 파손되어 양 지주만 남기고 있음에 비해 용두사지의 것은 거의 완형을 유지하고 있고, 당간부가 철제로 조성된 까닭에 「철당간」이라 불리우고 있다. 현존하는 당간지주는 상당수에 이르지만, 이처럼 당간을 철제로 조성한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자체에 명문이 있어 조성연대와 건립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당간에 기록된 준풍(峻豊)이란 연호는 고려 광종이 960년(광종 11)에서 963년(광종 14)에 걸쳐 사용한 독자적인 연호로써, 준풍(峻豊) 3년이라 기록된 점으로 보아 962년(고려광종13)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30호	문화재명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慶州 芬皇寺 模塼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모전석탑
연혁	현존하는 신라석탑 중 가장 먼저 건립된 석탑으로 안산암을 벽돌과 같이 다듬어 건립해 모전석탑(模塼石塔)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같은 재료상의 특징은 중국 전탑 모방설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 신라의 문화적 능력으로 볼 때 전탑을 모방했다기 보다는 인도의 석탑양식이 중국을 거쳐 신라에 수용된 결과라 생각된다. 현재 3층까지만 남아있는 이 탑은, 1915년에 진행된 수리 때 원상이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간 층수에 대해서는 5층설, 7층설, 9층설 등이 다채롭게 제기되어 왔으나 문헌기록의 재검토 및 실측조사 결과 9층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석탑은 634년(선덕여왕 3)에 분황사가 낙성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인해 늦어도 634년에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라석탑 발달사상 시원양식(始原樣式)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아가 선덕여왕 당시의 정세와 경내에 있는 팔각우물에 호국룡(護國龍)이 살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순수 불교적인 의미와 더불어 호국적인 성격을 지닌 석탑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187호	문화재명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英陽 山海里 五層模塼石塔)
지정일	1977.08.22	유형분류	모전석탑
연혁	수성암으로 마연된 전을 축적한 5층 석탑으로 주양굴곡이 섬세한 고려시대 석탑으로 추정된다. 이 탑의 축조연대는 통일신라시대< 統一新羅時代 >로 추정된다. 석탑의 전체 높이는 약 9m에 이른다. 기단< 基壇 >은 편평한 자연석을 썼고, 그 위에 2단의 탑신< 塔身 >받침이 놓여 있다. 탑신은 수성암< 水成岩 >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탑신 하반부에는 화강암< 花崗岩 >으로 섬세하게 조각한 문주< 門柱 >와 미석< 眉石 >이 있는 감실< 龕室 >이 있다. 이 탑은 모전석탑 계열에 속하는 우수한 탑으로 장중한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지정번호	국보 제13호	문화재명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康津 無爲寺 極樂寶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1983년 대량(大樑) 상부를 해체수리하면서 종도리(宗道理) 받침 장혀(長舌)에서 「선덕오년명(宣德五年銘)」 묵서(黑書)가 확인됨으로써 이 건물은 1430년에 건립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주심포식(柱心包式)의 대표적(代表的)인 불전(佛殿)으로 맞배지붕 형식(形式)을 갖추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알맞은 평면(平面) 구성(構成)에 현저(顯著)한 배흘림이 있는 기둥을 세우고 간결(簡潔)하고 아름다운 조각(彫刻)의 공포(공包)를 얹어 가구(架構)를 짰는데 그 수법이 고려기(高麗期) 양식(樣式)보다 세련미(洗鍊美)가 있다. 고려(高麗) 말기(末期) 건축(建築)에 곡선재(曲線材)를 많이 쓴 데 비하면 이 건물은 직선재(直線材)를 써서 측면관(側面觀)이 간결하면서도 짜임새가 균형을 잘 이루었고 조선 초기 양식을 어느 건물보다 유감 없이 발휘(發揮)하고 있어 주목받는 건물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14호	문화재명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永川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영산전은 1375년(고려 우왕 1)에 건립된 것으로 비정(比定)하고 있다. 고주(高柱)머리에는 뜬창방(昌枋)이 결구되고 대들보는 이 고주 위에 걸쳐졌으며 그 아래로는 평주에서와 비슷한 포작을 이루어 중도리를 바치고 있다. 그리고 대들보 중앙에는 키가 큰 제형(梯形)의 대공을 세우고 그 위에 포대공(包臺工)을 짜 종도리를 받치고 있으며 그 양측에 내반(內反)된 솟을합장을 지지(支持)시켰다. 이러한 결구수법은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외부의 양측면에서도 동일한 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의 포작 형태나 종도리를 받는 솟을합장의 굽은 곡율(曲率)수법 등은 조선 초기 건물인 무위사 극락전(無爲寺 極樂殿, 국보 제13호)보다 더 오래된 기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15호	문화재명	안동 봉정사 극락전 (安東 鳳停寺 極樂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이 건물(建物)은 현존(現存)하는 우리나라 목조건축(木造建築) 중 최고(最古)의 건물로 유명하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 주심포(柱心包) 건물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건물이지만, 전대(前代)인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건축양식(建築樣式)을 내포(內包)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1972년에 실시(實施)한 보수공사(補修工事) 때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건립 후(建立後) 첫 수리(修理)는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12년(1363)이며 그 뒤 조선(朝鮮) 인조(仁祖) 3년(1625) 2차에 걸친 수리가 있었다. 원래는 대장전(大藏殿)이라 불렀으나 뒤에 극락전(極樂殿)이라 개칭(改稱)한 것 같다. 기둥의 배흘림, 공포(공包)의 단조로운 짜임새, 내부가구(內部架構)의 고격(古格)함이 이 건물의 특징이며, 부재(部材) 하나하나가 모두 국보적(國寶的) 기법(技法)을 갖추고 있어 한층 더 지보적(至寶的) 존재(存在)라 할 수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18호	문화재명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榮州 浮石寺 無量壽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본전이며, 무량수불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본존으로 봉안해 놓았다. 현재의 건물은 1916년 실시한 해체 수리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1376년에 재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사당이 1377년에 재건된 것이라는 것과 비교하여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그 건축기법이 조사당보다 100~150년 정도 앞서는 건물로 보고 있으며, 발견된 묵서명은 후대에 보수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주심포(柱心包)집의 기본양식을 가장 잘 남기고 있으면서, 가구방식(架構方式)이나 세부수법은 후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장식적 요소가 적다는 점이다. 즉, 가구재(架構材)는 모두 직선재를 사용하였고, 공포의 첨차 끝과 보 또는 퇴보 등의 끝에는 간단한 곡선으로 된 장식이 있을 뿐이다. 또 기둥머리 위의 공포나 기타 부분에 있는 포작에 있어서 기둥머리나 소로(小累)및 굽의 단면이 안으로 굽은 곡(曲)을 가지고 굽 밑에 굽받침이 나와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19호	문화재명	영주 부석사 조사당 (榮州 浮石寺 祖師堂)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이 건물의 건립연대는 고려 말기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의 수리공사시 발견된 「선광(宣光)7년 (1377, 홍무(洪武) 10년)」이란 묵서(墨書)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건물은 건물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세부양식이 간결한 수법으로 구성된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나 기둥의 배흘림이 무량수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졌으며, 특히 기둥머리나 소로(小累)굽에 굽받침이 없어지고 굽의 단면이 직선으로 되어 다포집양식의 그것과 같아진 점, 그리고 마루도리를 받치는 솟을합장에 조금이나마 안으로 굽은곡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등이 모두 무량수전과 다르다. 이러한 수법들은 후기 건물에서 나타나는 양식적인 특징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49호	문화재명	예산 수덕사 대웅전 (禮山 修德寺 大雄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수덕사의 제일 윗단에 놓인 대웅전(大雄殿)의 전면기단은 장방형의 화강석을 바른층쌓기로 6단을 쌓아 10척 높이를 이루었고 후면은 두벌대쌓기를 하여 구릉과 연결시키고 있다. 정면에는 계단을 설치하지 않아 양측면을 통해 대웅전으로 오르게 하였다. 이 건물은 1937년 해체 수리공사때 장혀 하단에서 "지대원년무신사월십칠일입주(至大元年戊申四月十七日立柱)"라는 명문이 나와 고려시대 건물 중에서 정확한 건립연대(1308년)를 알 수 있는 건물로서 다른 건물의 건립 연대를 추정케하는 기준이 된다. 맞배지붕에 주심포(柱心包) 형식을 한 이 건물은 주두(柱頭) 밑에 헛 첨차(첨遮)를 두고 주두와 소로(小累)는 굽받침이 있으며, 첨차 끝은 쇠서형(牛舌形)으로 아름답게 곡선을 두어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측면에서 보아 도리(道里)와 도리 사이에 우미량(牛尾樑)을 연결하여 아름다운 가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을 보이는 목조건축이라 할 수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50호	문화재명	영암 도갑사 해탈문 (靈巖 道岬寺 解脫門)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현재 도갑사의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탈문(解脫門)은 1960년 해체수리공사 때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에 의해 1457년 공사가 시작되어 1475년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찰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인 해탈문은 기둥에 배흘림 수법이 남아 있으며 자연석을 사용한 초석에는 주좌(柱座)가 새겨지지 않았다. 이 문의 건축양식은 헛첨차를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부석사 조사당(浮石寺 祖師堂, 국보 제19호)과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지만, 외부로 빠져나온 출목이 구조적으로 이출목(二出目)이면서 그 형태는 외일출목(外一出目)으로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들보 또는 마루보 위에서 종도리나 대들보를 받치는 포대공(包臺工)의 세부수법이 기둥머리에 짜여진 포작(包作)세부수법과 약간씩 달라 마치 다포계통(多包系統)의 포작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 건물은 가구의 짜임수법에서 우미량을 사용하고, 첨차의 세부수법에서 고식(古式)의 화두식(花頭飾)이 살아 있는 등 주심포계통(柱心包系統)의 양식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일부에서는 다포계통의 양식적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해탈문은 국내의 산문(山門)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건물로, 건축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52호	문화재명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陜川 海印寺 藏經板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이 건물의 건립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와당(瓦當)과 평와(平瓦)에 나타난 각명(刻銘)에 의해 홍치(弘治) 원년(元年, 1488)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후 발견된 상량문 "천계이년임술칠월십팔일대장전상량(天啓二年壬戌七月十八日大藏殿上樑)"에 의하여 1622년(광해군 14) 수다라장(修多羅藏)이 중수(重修)되었고, "천계사년세차갑자사월념일대장전상량(天啓四年歲次甲子四月念日大藏殿上樑)"이란 명문에 의하여 1624년(인조 2) 법보전(法寶殿)이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면 15칸이나 되는 큰 규모의 두 건물을 남북으로 배치하였는데 남쪽의 건물을 수다라장(修多羅藏), 북쪽의 건물을 법보전(法寶殿)이라 하며 동·서쪽에도 작은 규모의 동(東)·서판고(西板庫)가 있다. 건물은 큼직한 부재(部材)를 간결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판고로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충족시켰을 뿐 장식적 의장을 하지 않았으며, 전·후면 창호의 위치와 크기가 서로 다르다. 통풍의 원활, 방습의 효과, 실내 적정 온도의 유지, 판가(板架)의 진열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55호	문화재명	보은 법주사 팔상전 (報恩 法住寺 捌相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창건되어, 조선 인조 4년(1626)에 벽암선사(碧巖禪師)가 재건하였고, 최근(1968)에 완전 해체 복원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팔상전은 법주사의 오층목조 탑파건축(塔婆建築)으로, 1984년 4월 30일 쌍봉사의 대웅전으로 쓰이고 있던 삼층목조탑이 화재가 발생하여 없어지게됨으로써, 한국 목조탑(木造塔)의 유일한 실예(實例)가 된 중요한 건축물이다. 1층과 2층은 정면 5칸 측면 5칸, 3·4층은 정면과 측면 3칸, 5층은 정면과 측면 모두 2칸의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사모지붕으로 상부에 상륜부(相輪部)가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공포(공包)의 양식(樣式)은 1층부터 4층까지는 기둥 위에만 공포를 짠 주심포식(柱心包式)이나, 5층은 주간(柱間)에도 공포를 짜 올린 다포식(多包式)으로 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내부 중앙에는 찰주(擦柱)의 심초석이 있어 이 위에 심주(心柱)를 세웠고, 이의 네 귀에 우고주(隅高柱)를 세웠다. 1층의 변주(邊柱)와 우고주를 연결한 퇴보 위에는 2층의 변주를 세웠다. 이러한 가구법은 목조탑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체 높이는 기단부에서 상륜(相輪)까지 약 24m로서 현존하는 한국의 탑파 중에 제일 높은 것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56호	문화재명	순천 송광사 국사전 (順天 松廣寺 國師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이 건물은 송광사의 3조사(三祖師)의 화상(畵像)을 모시기 위하여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창건하고, 그후 두 차례에 걸쳐 중수(重修)한 조선 초기 양식을 지니고 있어 경내 하사당(下祠堂)과 함께 같은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의 특색은 정면을 4칸으로 한 것과 양 측면에 측고주(側高柱)를 세워 전면쪽을 퇴칸(退間)처럼 가구한 점이다. 공포(공包)는 기둥 위에만 배치한 주심포계(柱心包系) 양식으로 짜임새는 단순하나 세부수법에 장식적인 요소가 짙게 나타나 있다. 공포는 헛첨차(虛첨遮)로부터 전개되고 행공첨차(行工첨遮)와 통장혀(通長舌)가 외목도리(外目道里)를 받게 하였으며, 내부에서는 헛첨차와 살미(山彌)가 보아지가 되어 힘있게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현재 대들보 윗면에 우물천장을 전면 가설하였으나 그 위의 가구부재(架構部材)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는 연등천장이었던 것 같다. 대들보 위의 가구는 동자주(童子柱)가 종보를 받게 하였다.		
지정번호	국보 제62호	문화재명	김제 금산사 미륵전 (金堤 金山寺 彌勒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금산사는 백제 법왕 2년(600)에 창건된 대사찰로 신라 혜공왕 2년(766)에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 건물은 조선 인조 13년 수문대사가 재건한 우리나라 유일의 3층 불전으로 용화전, 산호전, 장륜전이라고도 불리워진다. 1층과 2층은 정면 5칸, 측면 4칸이며, 3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인 팔작지붕 다포(多包)집으로 내부는 통층(通層)으로 되어 있다. 제일 높은 기둥이 하나로 된 통나무가 아니고 몇 토막을 이어서 만든 것이 특이하다. 이 특수한 가구방식(架構方式)은 목조탑파(木造塔婆)의 양식에서 번안(飜案)된 구조로 규모가 웅대하고 상부의 체감이 안정된 느낌을 준다.		

지정번호	국보 제67호	문화재명	구례 화엄사 각황전 (求禮 華嚴寺 覺皇殿)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화엄사(華嚴寺)는 544년(신라 진흥왕 5) 연기조사(緣起祖師)에 의하여 창건되고 자장율사(慈藏律師)에 의하여 증축되었다고 전하는 대가람(大伽藍)이었으나,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소실되었으며 1630년(조선 인조 8) 벽암선사(碧巖禪師)가 중건하여 지금의 가람(伽藍)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웅전과 같이 제일 높은 단 위에 놓인 각황전은 동축(東軸)을 하고 있으며, 초석은 전체적으로 방형이지만 주좌부분만 약간 도드라져 평탄하게 다듬질하였다. 건물의 전체 평면은 처마기둥과 안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는 모두 전돌이 깔려있다. 현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5칸의 팔작지붕으로 2층의 다포식(多包式) 건물이며 내부가 통층(通層)으로 되어 웅장감을 준다. 1층과 2층 처마 밑에는 내·외 2출목 5포작의 다포계 포작을 짜았는데 첨차는 교두형이지만 하단은 심한 곡을 나타내고 있고, 외부로 빠져나온 제1·2제공 또한 그 끝이 위로 심하게 올라가는 등 조선후기 건축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의 축부에서는 1층에 모두 정자살 문을 달았고 2층에는 단지 채광을 위한 광창(光窓)만 설치되었다. 조선후기의 건물로 매우 위풍당당한 건물이지만 단청이 없어 검소한 느낌을 주며 사역에서 차지하는 공간적인 비례감은 매우 좋은 편이다. 원래는 이 건물 안벽에 대리석의 화엄경(華嚴經)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임진왜란 때 건물과 함께 피해를 입어 지금은 수많은 파편으로 남아 보존되고 있다. 각황전(覺皇殿)은 그 거대한 위용과 이 석각(石刻)으로 이름이 높았던 건물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290호	문화재명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梁山 通度寺 大雄殿 및 金剛戒壇)
지정일	1997.01.01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통도사(通道寺)는 합천해인사·순천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보사찰 중의 하나이다. 경내의 가람(伽藍)건축은 대략 동서로 배치되어 있으나 대웅전은 남향으로 세워졌으며, 그 뒤쪽에 금강계단(金剛戒壇)이 자리잡고 있다. 대웅전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에 측면이 5칸인 특수한 평면이며, 지붕의 형태 또한 정면을 향하여 정자형(丁字形)을 이룬 희귀한 형식이다. 공포는 외 이출목 내 사출목이며, 기둥 사이에는 각각 공간포 하나씩을 배치해 놓았는데, 정면의 중앙칸만은 2개이다. 건물 외부의 기단은 통일신라시대의 석조기단과 같은 형식의 구조이며, 면석(面石)마다 연판(蓮瓣)을 정교하게 조각해 놓았다. 1961년에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동쪽 합각머리의 서까래 3개에서 순치(順治) 2년 상량하였다는 묵서명(墨書銘)이 발견어 통도사(通度寺) 대웅전(大雄殿)은 건립		

	연대가 확실한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축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대웅전 바로 뒤편에 설치된 금강계단의 규모는 가로 45.5m, 새로37m로 장방형이며 사방의 모퉁이에는 무장한 신장상이 세워져 있고, 면석에는 천의자락을 휘날리며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천인상이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정면에는 배례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리는 석등 간석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기단 윗면에는 모두 화강석의 판석이 깔려 있으며 그 중앙에는 높이 1.785m의 석종형탑(石鍾形塔)을 세워 놓았다.	

지정번호	국보 제311호	문화재명	안동 봉정사 대웅전 (安東 鳳停寺 大雄殿)
지정일	2009.06.30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봉정사 대웅전은 그 동안 조선초기 다포건물로 추정되어 오다가 근래의 해체조사 시 발견된 묵서명에서 '1435년(조선 세종17년)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그 연혁이 밝혀졌다. 이 건물의 공포는 힘있고 가식없는 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가구형식(架構形式)과 세부기법은 단조로우면서 견실한 공법(公法)으로 전형적인 초기 다포양식(多包樣式)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심 법당인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좌우로 모시고 있다. 1962년 해체·수리 때 발견한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전기 건물로 추정한다. 규모는 앞면 3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인데, 밖으로 뻗친 재료의 꾸밈없는 모양이 고려말·조선초 건축양식을 잘 갖추고 있고 앞쪽에 툇마루를 설치한 것이 특이하다. 건물 안쪽에는 단청이 잘 남아 있어 이 시대 문양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건실하고 힘찬 짜임새를 잘 갖추고 있어 조선 전기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316호	문화재명	완주 화암사 극락전 (完州 花巖寺 極樂殿)
지정일	2011.11.28	유형분류	사찰건축
연혁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하앙식(下昻式) 건물의 유일한 예이다. 이 건물은 1981년 수리할 때 묵서명이 발견되어 조선 선조 38년(1605)에 건립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건물은 잡석기단 위에 자연석 덤벙주초를 놓고 민흘림기둥을 세웠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양식의 맞배지붕 형식이다. 건물 내부에는 중앙칸 뒤쪽에 소박한 불단을 놓고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였으며, 그 위에 닫집을 만들어 비룡(飛龍)을 조각하였다. 공포는 외2출목 내3출목으로 외부는 앙서형의 쇠서를 새기고, 내부는 연화초(蓮華草)를 새겼다. 공포 위에는 하앙이 경사로 얹혀져 외부에서는 처마의 하중을 받고 내부에서는 지붕하중으로 눌러주게 되어 있어 처마하중이 공포에 주는 영향을 격감시키게 하였다. 하앙식 공포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유구이므로 목조건축 구조 연구상 귀중한 유구라 할 수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16호	문화재명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安東 法興寺址 七層塼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전탑
연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층기단을 구비한 평면 방형의 칠층전탑이다. 기단은 시멘트를 사용하여 보수했는데, 계단이 설치된 남면을 제외한 각 면에는 팔부신중 및 사천왕상을 양각한 화강암 판석을 각각 6매씩 세웠다. 그런데 이들 부재는 규모에서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고, 조각된 수법과 양식은 물론 배치 순서도 달라 다른 석탑에서 옮겨 보수 공사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낙수면의 일부에 기와가 놓여 있는 점으로 보아 본래는 각 층 낙수면에 모두 기와를 덮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전탑의 지붕면에 기와가 사용되고 있음은 초층탑신에 개설된 감실과 더불어 전탑 역시 목조건축에 양식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잘 알게 해준다. 이 전탑은 현존 최고(最古), 최대(最大)라는 점 외에 정제된 규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층탑신에 개설된 감실과 더불어 옥개석에 놓인 기와는 전탑 역시 목조건축에 양식적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2호	문화재명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서울 圓覺寺址 十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탑은 상층부(上層部)에 명문(銘文)이 있어 세조 13년(1467)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석탑의 재료가 화강암인 데 비해 대리석으로 만든 점도 특이하며 조각의 수법이 세련되고 의장(意匠)도 풍부하여 조선시대 석탑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옥개석은 각 층마다 팔작지붕을 놓았고, 하면에는 공포가 조각되었다. 낙수면에는 마치 목조건물의 지붕과 같이 정교한 기와골이 표현되었다. 이 중 2층 정면의 지붕은 전각지붕을 묘사했고, 3층은 2중지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석재로 조성했지만 목조건축의 지붕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석탑의 옥개석은 다포계 목조건물의 세부를 상세히 묘사해 놓아 당시 목조건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6호	문화재명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忠州 塔坪里 七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탑은 남한강(南漢江) 상류(上流)의 강가 높은 토단 위에 건립(建立)된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유일한 7층의 거탑(巨塔)으로 높이 14.5m이며, 석탑을 해체할 때 6층 탑신석과 기단에서 각각 고려시대(高麗時代) 거울을 비롯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가 발견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명 「중앙탑」이라고도 하는데 발굴조사 결과와 기존의 전설이 모두 풍수설과 연관이 있고, 충주의 역사 지리적인 상황을 볼 때 당시에 성행했던 풍수사상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석탑은 9세기에도 신·구양식(新·舊樣式)이 혼재되어 건립되는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지정번호	국보 제9호	문화재명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석탑은 익산(益山)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石塔)과 함께 백제시대(百濟時代)에 세워진 귀중한 탑으로, 우리나라 석탑의 시조(始祖)라고 할 수 있다. 목조건물의 가구(架構)를 모방하고 있으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정돈된 형태에서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의 형태가 장중하고 명쾌한 기풍을 풍겨준다. 미륵사지석탑에서 보여준 거대함에서 탈피하여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단아하면서도 정제된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어 백제석탑의 양식적 완성을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정방의 기공문에 새겨진 현경(顯慶) 5년이 660년(의자왕 20)인 점을 볼 때 이 석탑은 이 때 보다도 먼저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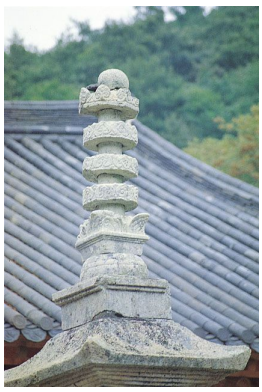
지정번호	국보 제10호	문화재명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 탑은 갖가지 모습들의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구조가 돋보이고 있어, 당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석탑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단(基壇) 구조(構造)와 각부(各部) 장식 조각에서 특이한 양식을 보여 주는 전고(全高) 5m의 이형석탑(異形石塔)이다. 기단부(基壇部)는 방형(方形) 대석(臺石)을 놓아서 기단을 삼았으며 그 위로 방형(方形) 3층 탑신부를 올려 놓고 있다. 탑신부(塔身部)에 있어서 아래층 탑신은 폭(幅)에 비해 높이가 높으며 2층, 3층의 탑신은 일반 석탑에서와 같이 감축도가 심하지 않다. 옥개석(屋蓋石)의 옥개받침에 층단을 두지 않은 것도 특이하다.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 복발(覆鉢), 보개(寶蓋), 수연(水煙)이 완전한 찰주(擦柱)에 겹쳐있는 것도 희귀한 예이다. 탑 전체의 구조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각층 탑신 상부에는 목조건축(木造建築)의 두공형(枓공形)을 모각(模刻)하였다 1층 탑신 4면에는 보살상과 신장상 2구 씩을 배치하고 2층 탑신에는 주악천인상(奏樂天人像) 2구씩을, 3층 탑신 4면에는 천인좌상(天人坐像) 1구 씩을 각각 새기고 있어 탑신 전체가 천인(天人), 보살(菩薩), 천왕상(天王像) 등으로 가득 찬 화려한 탑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11호	문화재명	익산 미륵사지 석탑 (益山 彌勒寺址 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석탑은 한국에 현존하는 석탑 중에서 양식상으로 건립년대가 가장 오래고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석탑이다. 탑의 건립연대는 600년경으로 추정되며, 한국 석탑의 시원양식(始源樣式)으로서 목탑(木塔)이 석탑(石塔)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탑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20호	문화재명	경주 불국사 다보탑 (慶州 佛國寺 多寶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한국의 석탑 중 일반형을 따르지 않고 특이한 형태를 가진 탑 중의 하나로서 이만큼 기발한 의장으로 이루어진 탑은 없다. 이 탑을 다보탑이라고 함은 다보여래가 석가여래와 병좌하여 석가설법을 증명하는 상으로 동양 불교국가에서 석조로서 가장 고고한 예이다. 본 탑의 건립은 서의 삼층석탑과 한가지로 신라 경덕왕 시 김대성 중창 당시로 추정되며, 이 탑은 1925년 수리를 한 바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21호	문화재명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慶州 佛國寺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종래에는 부재의 조립에 있어 목탑의 재현에 집착한 나머지 많은 양의 석재가 사용되었지만, 이 석탑에서는 기단으로 부터 탑신에 이르기까지 부재의 단일화(單一化)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부재와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목조건축 양식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어 석탑의 건립은 목조건축의 번안(飜案)임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외형적인 면에서는 신라석탑의 발전사상에 있어 시원기(始原期)와 전형기(典型期)를 거치면서 성립된 모든 양식과 기법을 충분히 소화·정리하고,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발휘하였다. 결국 8세기 중반 신라인들은 불국사삼층석탑을 건립함으로써 당대(當代)의 석탑은 물론, 이후 건립되는 모든 일반형 석탑의 양식을 정립해 「석탑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는 완성미를 이룩했다. 따라서 신라는 이 석탑의 건립으로 인해 8세기 중반에 이르러 석탑의 건립에 따른 모든 기술력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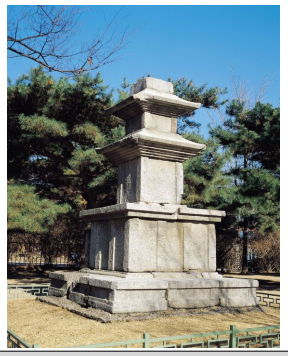
지정번호	국보 제34호	문화재명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昌寧 述亭里 東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동삼층석탑은 2층기단 위에 3층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8세기 양식을 구비한 일반형 석탑이다. 하층기단은 4매의 석재로 조립되었는데, 지대석과 면석이 한 돌로 구성되었다. 면석에는 2기의 탱주와 우주가 모각되었다. 하층기단 갑석은 5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기단 받침을 조출해 상층기단을 받고 있다. 상층기단 역시 4매의 석재로 조립되었으며, 면석에는 2기의 탱주와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면에는 각형 1단의 부연이, 상면에는 각형 2단의 높직한 초층탑신받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 석탑은 3층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기단과 탑신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 고준(高峻)한 느낌과 당당함을 주고 있다. 아울러 석재의 가공 역시 정교하고 치밀한 수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확립된 정형기의 양식을 모범(模範)으로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세기 중반에 건립된 석탑이 대체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집중하여 건립되어 있음에 비해, 청도 봉기 동삼층석탑은 수도인 경주에서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일예로 주목된다. 1965년 해체·수리되었으며, 3층탑신의 중앙에서 일변 16.7㎝, 깊이 13.6㎝의 방형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사리공의 내부에서 청동으로 제작된 잔형(盞形)의 사리용기와 난백색의 사리 7과가 봉안된 사리병(舍利甁)과 향편(香片)및 작은 유리구슬 등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지정번호	국보 제35호	문화재명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求禮 華嚴寺 四獅子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석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상층기단에 배치된 사자와 승상인데, 불국사 다보탑 사사자의 배치 및 상층기단에 놓인 기둥배치 수법이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호남지방에 유일하게 건립된 8세기 석탑이라는 면에서도 주목된다. 이처럼 화엄사에서 확립된 사사자석탑 양식은 고려·조선시대에까지 영향을 끼쳐 네 마리의 사자가 배치된 특수형 석탑의 한 계보를 성립시켰다. 근본 조형은 이중기단의 3층석탑인 기본형을 취하고 있으나 상층 기단에서 특이한 의장을 보여 준다. 하층 기단 각 면석에는 고대 양식에 속하는 3구식의 안상을 조각하여 그 안에 천인상을 양각하였다. 상층 기단에는 귀기둥을 대신하여 연화대 위에 꿇어앉은 암수2마리씩의 사자를 배치하고 머리 위에는 연화대를 얹어 갑석을 받치게 하였다. 또 중앙에는 찰주 대신 합장한 대덕의 입상을 세웠고, 갑석 이면 중앙에는 연화를 조각하여 천개를 삼는 등 다양한 특징을 갖추게 하였다. 귀기둥을 사자로 대치한 양식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자 배치 양식과 관련된다. 탑 조성에 있어 착상이 기발하고 조각이 우수한 점 등은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여러 개의 사자탑 가운데 이를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게 한다.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한국 석탑형식 분류에서 이형석탑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석탑이다. 조성년대도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중엽으로 보인다.	 	

지정번호	국보 제37호	문화재명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慶州 皇福寺址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탑은 신라 신문왕(神文王)이 691년에 돌아가자 그의 아들인 효소왕(孝昭王)이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 이듬해(692)에 세웠으며 효소왕이 돌아가자 성덕왕(聖德王)이 성덕왕 5년(706)에 앞서의 두 왕을 위해 사리(舍利), 불상(佛像) 등을 다시 넣고 아울러 왕실의 번영과 태평성세를 기원한 것이다. 양식적인 면에 있어서 이보다 조금 앞서 건립된 감은사지 및 고선사지삼층석탑에서 확립된 전형기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형기의 석탑에서는 주로 부재의 개별화가 이루어져 석탑 한 기를 건립하는데 많은 양의 석재가 사용되었지만 황복사지 석탑에서는 석재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탑신과 옥개석 또한 각각 일석(一石)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석탑에 이르러 탑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석재의 수가 앞 시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탱주의 수가 상·하층 기단 모두 2주로 줄어 기단이 축소되면서 탑신부 역시 일석(一石)으로 조성되어 석탑의 전체적인 규모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부재의 감소와 기단 및 탑신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형기 석탑에서 확립된 각 부 양식을 모두 계승하면서 건립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정번호	국보 제38호	문화재명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 (慶州 高仙寺址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석탑에 대한 실측조사 결과 기단부에 44매, 탑신부에 38매 등 모두 82매의 석재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석탑의 건립에 많은 석재가 사용된 것은 석탑의 규모가 크고 높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목조건축의 충실한 재현에 주력했던 당시의 상황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석재의 결구 수법과 양식 및 규모에서 인근지역에 위치한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과 동일한 면을 보이고 있어, 신라석탑의 발달사상 전형기(典型期)의 석탑으로 분류되고 있다. 목탑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이후 건립되는 석탑의 양식적 근원을 마련한 석탑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반석은 하면에 각형 1단의 부연이 조출된 신라시대 통식의 노반과는 달리 상면에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해 앙화석을 받고 있어 이채롭다. 고선사는 원효대사(617~686)가 주석했던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입적(入寂)이 686년(신문왕 6)인 점과 감은사지삼층석탑과 같은 양식임을 감안할 때 석탑의 건립하한은 686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39호	문화재명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慶州 羅原里 五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중(二重)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부(塔身部)를 구성하였으며 탑신부 윗 부분에 장식(裝飾)되었던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과 찰주(擦柱) 일부만이 남아 있다. 경주일원에서는 감은사지 및 고선사지삼층석탑에 버금가는 거대(巨大)한 규모의 석탑으로 각 부(部)의 구조(構造)도 정연하고 비례도 아름다우며 높은 위치에 세워 주위를 압도(壓倒)하는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 1996년 3월에 이르러 석탑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 보수가 진행되었데 이때 3층옥개석 상면 중앙부의 사리공에서 사리(舍利) 15과, 금동제사리함(金銅製舍利函), 다수의 금동(金銅) 및 목조소탑편(木造小塔片), 그리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사경편(寫經片)등 많은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수습된 소탑들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의한 소탑 봉안 사례 중 가장 이른 것으로, 구황리삼층석탑의 사리구와 더불어 8세기 초반에 탑의 조성에 사상적 바탕을 마련해준 조탑경(造塔經)이 성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석탑은 순백색의 화강암이 주는 질감과 더불어 기단부 및 초층탑신에 사용된 많은 석재, 결구수법, 상·하층 기단에 모각된 탱주의 수 등에서 정형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탑신부는 대체로 일석(一石)으로 조성되었고, 세부적인 면에서는 정형기 석탑의 양식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석탑은 감은사지 및 고선사지 삼층석탑에서 불국사 삼층석탑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양식을 지닌 석탑으로 생각한다.		
지정번호	국보 제40호	문화재명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慶州 淨惠寺址 十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석탑은 전체적으로 방형의 평면구도를 이루고 있어 일반형 석탑의 범주에 속하지만, 13층이란 층수와 더불어 각 부의 양식에서 특이한 작풍(作風)을 보이고 있어 특수형 석탑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지에 조성된 나즈막한 토단(土壇)위에 건립되었는데, 이의 원형여부는 불확실하다. 탑신부는 13개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초층탑신은 탑신석과 옥개석을 거대하게 조성하고, 나머지층은 아주 작게 조성했다. 초층탑신의 네 면에는 높직한 석주형(石柱形)의 우주를 세운 다음, 우주의 안쪽으로 짧은 기둥을 좌·우에 놓고, 상면에는 인방석(引枋石)을, 하면에는 하방석(下枋石)을 놓았다. 2층 이상의 탑신석과 옥개석을 1층에 비해 너무 작게 조성하여 마치 이 석탑의 중심이 1층 탑신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에 속한 부가물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2층 이상의 탑신과 옥개석은 모두 일석(一石)으로 조성하였는데, 탑신부의 높이가 매우 낮아 마치 옥개석만 쌓아 놓은 듯이 보인다. 이 석탑은 초층탑신으로 보면 시원기 석탑의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1층과 나머지 층의 부조화와 더불어 옥개석과 탑신석이 일석으로 조성되고, 옥개받침이 3단씩 조출된 점으로 보아 9세기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번호	국보 제44호	문화재명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長興 寶林寺 南·北 三層石塔 및 石燈)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법당 앞에 남·북으로 건립된 쌍탑으로 대부분의 쌍탑은 동·서 방향에 건립되어 있음에 비해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 탑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석제상륜까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희소(稀少)한 석탑이다. 이중기단 위에 놓여 있는 삼층석탑은 하층기단에 2탱주, 상층기단에 1탱주를 간략하게 모각(模刻)하였고 상대갑석 윗면에 각형(角形)과 호형(弧形)의 탑신(塔身)받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양탑이 다 완전하며 노반, 복발, 앙화, 보륜, 보개, 보주 등 상륜부를 순서대로 나란히 갖추고 있어 신라 말기 석탑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정번호	국보 제48-1호	문화재명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平昌 月精寺 八角 九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석탑은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 주로 유행했던 다각다층석탑(多角多層石塔)의 하나로 고려초기 석탑을 대표하는 것이다. 팔각이중기단 위에 팔각의 갑석이 놓여 있는데 갑석 위에 조각한 복련이나 기단 중석에 안상(眼象)을 새긴 점 등 고려적인 특징이 엿보인다. 이 위에 놓인 1층탑신 받침 또한 고려 특유의 특징이며 탑신 각면의 감실과 수평적인 옥개석 등도 마찬가지이다. 9층으로 된 탑신과 옥개석은 늘씬한 높이에 비해서 안정된 느낌을 주며 모서리의 반전이나 탑신의 감실, 팔각의 다양한 변화 등은 이 탑의 고려불교문화 특유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77호	문화재명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義城 塔里里 五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현존하는 신라석탑 가운데 분황사 모전석탑에 이어 두번째로 건립된 석탑이다. 높직한 토단 위에 건립되어 있으며, 기단으로부터 상륜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재(部材)는 화강암이 사용되었다. 이 석탑은 옥개석에서는 전탑의 수법을 따르고 있지만, 기단부의 구성과 탑신부의 감실, 우주 및 탱주에서 보여준 엔타시스 수법, 많은 석재의 사용 등에서 목조건축의 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옥개석의 양식으로, 이곳에서 전탑의 양식이 처음 구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석탑을 구성하는데 많은 양의 석재가 사용되었고, 지대석 상면에는 우주와 탱주가 놓일 위치에 홈을 파서 마치 초석과 같은 면을 보이고 있으며, 낮고 널찍한 기단부와 각면에 놓인 우주와 탱주에는 엔타시스 수법이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일층탑신석에 놓인 별석(別石)의 우주는 엔타시스 수법 뿐만 아니라 상면에 주두(柱頭)가 놓여 있으며, 남쪽면에는 감실이 개설되어 있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안정된 체감비를 보이고 있어 목조건축의 재현에 주력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옥개석의 상·하면에 표현된 층단형의 받침에서 전탑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분황사 모전석탑과 의성 탑리오층석탑은 목탑의 양식을 공통적으로 지니면서 서로 다른 모전석탑의 계보를 형성하며 신라석탑의 영역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다.	 	
지정번호	국보 제86호	문화재명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開城 敬天寺址 十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이 탑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중련리 부소산< 扶蘇山 > 경천사터< 敬天寺址 >에 있던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반출한 것을 되돌려 받아 1960년 경복궁에 옮겨 세웠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놓았다. 고려 충목왕 4년 (1348)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십층석탑은 이 탑을 본따 만든 것이다. 높이가 13m 에 달하는 대리석 10층 석탑으로 네 면이 튀어나온 사면 두출성형< 斗出星形 >의 3층 기단 위에 같은 평면을 한 탑신을 3층 올린 뒤 정사각형의 탑신 7층을 쌓았다. 기단과 탑신에는 불< 佛 > 보살< 菩薩 > 초화문< 草花紋 > 등을 양각했으며, 탑의 지붕인 옥개석의 처마 구조는 목조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당시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초층탑신의 이맛돌에 새겨진 「지정팔년무자삼월일(至正八年戊子三月日)」이란 명문에 의해 1348년(충목왕 4)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정세는 물론 석탑에 구현된 라마 양식과 일치된다고 하겠다. 원각사지10층석탑(국보 제2호)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점으로 보아 같은 유형의 계보가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립문화연구소에서 해체하여 보수 중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99호	문화재명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金泉 葛項寺址 東·西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경상북도 금릉군 남면 오봉리에 자리한 갈항사지의 동·서쪽에 쌍탑으로 건립되어 있던 것을 1916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동탑은 상륜부가, 서탑은 3층옥개석 이상이 결실되었지만 석탑의 전체적인 양식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현상으로 보아 양 탑의 규모나 양식은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탑신 전체에 정혈(丁穴)이 있어 본래는 장식이 있는 금동판으로 덮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초층탑신 면석의 凹凸흔적은 사천왕입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동탑(東塔) 기단에 있는 명문으로 미루어 석탑은 758년(경덕왕 17)에 문성왕의 외척(外戚)들에 의해 건립된 원탑(願塔)임을 알 수 있다. 1916년 2월 12일에 도굴당했는데, 이전(移轉) 당시의 기록을 보면 동탑에서는 도기(陶器)의 파편과 함께 부패된 종이가, 서탑에서는 파손된 청동병과 함께 종이조각으로 보이는 유물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이 석탑은 건립연대가 확실해 신라석탑의 편년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기단으로부터 탑신에 이르기까지 금동판으로 장엄이 가해진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100호	문화재명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開城 南溪院址 七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경기도 개성시 덕암동에 자리한 남계원터에 있던 것을 1915년 기단부를 제외한 탑신부만 경복궁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원위치에 대한 조사 결과 2층으로 구성된 기단이 출토되어 추가 이전해 석탑 옆에 놓았다가 다시 복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석탑은 2층기단을 구비한 점에서 신라석탑의 기풍을 따른 듯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기단부의 부조화, 얕게 각출된 우주, 옥개석 등의 양식으로 볼 때 고려시대 석탑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대한 기풍과 석재의 조립에 있어 정제된 결구수법을 지니고 있어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석탑이라 하겠다. 그리고 각 부분의 수법과 양식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후대에 보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단부는 석재의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짐작할 수 있다. 하층기단은 하대석과 면석 및 갑석이 각각 여러 장의 석재로 구성되었는데 규율성이 없고, 비교적 높게 조성되었다. 상층기단 역시 많은 석재로 구성하였는데, 높이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 석탑의 기단은 신라시대 이래의 전형적인 석탑과 비교해 볼 때 하층기단은 높게, 상층기단은 낮게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층기단 갑석의 하면에는 낮은 부연이 있고, 상면에는 낮은 각형 고임대가 조출되어 있다. 1915년 이 석탑을 이전할 때 탑내에서 감지은자묘법연화경(紺紙銀字妙法蓮花經) 7축(軸)이 발견되었는데, 내용으로 보아 1283년(충렬왕 9) 중수시 시납한 사경(寫經)으로 보인다.	 	

지정번호	국보 제105호	문화재명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山淸 泛鶴里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의 범호사(泛虎寺)라 전하는 사지(寺址)에 무너져 있던 것을 1941년 일본인 골동품상이 매입하여 대구까지 반출하였으나, 압수되어 1947년에 경복궁으로 이전 복원하였다. 2층기단을 구비한 평면 방형의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으로, 하층기단의 지대석과 기대(基臺)는 이전 복원시 시멘트로 보강하여 원형을 알 수 없다. 이 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에 불교상을 조각하고 있는데, 이 중 상층기단에 조각된 팔부신중은 9세기 전기에 들어 시작된 양식임과 더불어 초층탑신에 보살좌상을 조각한 유일한 예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옥개석의 날렵한 양식 역시 9세기 석탑에서 등장하는 수법임을 알 수 있다. 옥개받침이 매층 4단으로 줄어들고, 기단부에서 탱주가 상2, 하1주로 축소되어 건립연대가 강하(降下)됨을 알 수 있다. 석재의 결구수법과 정제된 양식으로 보아 8세기 석탑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여 9세기 전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112호	문화재명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慶州 感恩寺址 東·西 三層石塔)
지정일	1962.12.20	유형분류	탑
연혁	신라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타종무열왕의 자인 문무왕이 동해에 발호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기원을 그의 자 신무왕이 즉위한 후 그 부왕의 명복을 위하여 동왕2년(682년)에 건립한 것이다. 1960년 양탑 중 서탑을 해체 수리하였던 바 3층탑신 상면에서 창건당시에 납치하였던 사리장치가 발견되어 희귀한 유례를 보여주었다. 이중기단(二重基壇) 위에 세워진 3층석탑(三層石塔)으로 신라석탑(新羅石塔) 양식을 따랐고 각부의 조각과 장식이 풍부하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이 각각 돌 하나로 되어 있고 초층탑신에는 네 귀에 기둥이 서 있고 각면에는 앙련, 복련의 연화좌(蓮華座) 위에 여래좌상 1구씩이 있어 사방불(四方佛)을 이루었다. 2층 이상의 탑신은 점점 줄어들고 4개의 우주만이 모각되었다. 옥개석은 각층 받침이 3단이고 추녀밑은 수평이다. 그리고 상륜부의 부재는 모두 없어졌다. 특히 초층탑신에는 사방불을 조각한 외에 그 밑으로 인왕(仁王), 사천왕(四天王), 보살(菩薩) 등을 질서 있게 배치한 것이 특이하며 탑 전체가 안정된 느낌을 주는 우수한 탑이다. 신라(新羅) 말기(末期)에 조성(造成)된 작품(作品)으로 보존(保存) 상태(狀態)가 양호(良好)한 석탑(石塔)이다.		

지정번호	국보 제122호	문화재명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襄陽 陳田寺址 三層石塔)
지정일	1966.02.28	유형분류	탑
연혁	진전사지 삼층석탑은 높은 지대석 위에 이중기단을 설치하고, 3층 탑신(塔身)을 조성한 통일신라 8세기 후반의 석탑이다. 밑 기단에는 연화좌(蓮華座) 위에 광배(光背)를 갖춘 비천상(飛天像)이 각면에 2구씩 조각되었고, 윗 기단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이 각면에 2구씩 조각되었다. 모두 연좌위에 결가부한 좌상으로 두광과 신광을 표시하였고, 동서면의 상은 통견, 남북면의 상은 우견편단인데 일부 파손된 곳이 있기는 하나 각명한 조법이 놀랍다. 탑신과 옥개석은 한개의 돌로 간결하게 만들었는데, 옥개석은 받침이 5단이고 추녀의 네 귀가 약간 치켜 들어 경쾌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풍경(風磬)이 달렸던 자리가 남아 있다. 초층옥신 상면 중앙에는 방형사리공(方形舍利孔,1변 길이 32.5㎝,깊이 11.5㎝)이 있다. 이 탑은 높이가 5m로 상륜부(相輪部)가 모두 없어졌으나 완숙하고 세련된 불상 조각이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석탑 중 하나이다. 본 탑이 속해 있던 부근의 사지에서 진전이라 새겨진 암기와 일편이 발견된 일이 있다.		
지정번호	국보 제130호	문화재명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龜尾 竹杖里 五層石塔)
지정일	1968.12.19	유형분류	탑
연혁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죽장사의 석탑으로 높이가 10m에 이른다. 2층으로 된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으로 구성되었다. 1층 탑신에는 남쪽면에 감실이 있고 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정상부의 장식이 첨가된 상륜은 모두 없어지고 아래쪽의 노반만 남아 있다. 이 석탑은 100여 매가 넘는 많은 석재를 사용해 건립했다. 이는 석탑의 규모가 5층석탑으로서는 장대하고 높다는 외형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초층탑신에 개설된 감실과 더불어 목조건축을 충실히 재현한다는 석탑 건립의 근본적인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신라석탑과는 달리 기단과 탑신석에 우주와 탱주가 생략되어 이채로운 면 또한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옥개석의 상·하면에 조출된 층단형 받침을 통해 이 석탑이 모전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기단부가 많이 손상되어 원형을 잃었지만, 선산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되던 모전석탑의 하나라는 점과, 이 계열 석탑의 대부분이 단층기단인 점에 비해 2층기단을 구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정번호	국보 제236호	문화재명	경주 장항리 서 오층석탑 (慶州 獐項里 西 五層石塔)
지정일	1987.03.08	유형분류	탑
연혁	월성 장항리 서 오층석탑은 이중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부(塔身部)를 구성하였으며 신라시대 양식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는 큰 규모의 석탑이다. 장항리사지는 토함산(吐含山) 동쪽의 한 능선이 끝나는 기슭에 마련된 절터로서 이곳에는 현재 동· 서 쌍탑이 나란히 서 있다. 현재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만 남아 있고 하층기단은 비교적 넓게 만들어져 안정감이 있으며 1층 탑신 4면에 귀면(鬼面) 형태의 쇠고리가 장식된 두 짝씩의 문을 조각하고 그 좌우에는 연화좌(蓮華座) 위에 서있는 인왕상(仁王像)을 정교하게 새기어 희귀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각 부의 비례가 아름답고 조각 수법도 우수한 8세기의 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신라 석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정번호	국보 제289호	문화재명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지정일	1997.01.01	유형분류	탑
연혁	이 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오층탑신을 올린 평면방형의 석탑으로, 각 부에 구현된 여러 양식으로 보아 백제계석탑(百濟系石塔)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단은 여러 장의 판석으로 지대석을 마련하고 상면에는 높직한 각형 1단의 받침을 놓은 후 기단을 조성했다. 12매의 판석으로 조립된 기단면석의 각면에는 탱주 2기와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8매의 판석으로 조립된 갑석은 길이에 비해 폭이 좁은데, 하면에는 각형 1단의 부연이, 상면에는 각형 1단의 초층탑신 받침을 놓았다. 갑석의 상면은 완만한 경사가 있어 9세기에 건립된 석탑에서와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 석탑은 개별화된 부재, 탑신에 비해 낮은 단층기단, 평박광대(平薄廣大)한 옥개석, 각형 3단의 옥개받침 등으로 보아 인근에 있는 미륵사지석탑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계석탑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유형의 석탑 중 가장 먼저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심초석과 초층옥개석에서 수습된 사리장엄구는 우리나라 공예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특히 절첩식(折帖式)으로 된 금강경 금판 19매는 이제까지 발견된 예가 없었던 희귀한 장엄구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04-031

31. 2016년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중점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실시한 33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1)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선정(2014.12.)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36호)

○ 중점관리대상 선정 56건(국보 21건, 보물 26건, 사적 9건)

(2) 목적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등에 따른 보존관리 정책 기초자료 제공

○ 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의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실현

다. 주요내용

(1)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점관리대상 모니터링 추진실적

○ 점검분야 : 구조안전, 보존과학, 생물피해

○ 2015년 모니터링 대상 36건(56건) : 국보 18건, 보물 14건, 사적 4건 완료

- 점검결과 : 지속점검 30건, 점검종료 6건(해제 2건, 종료 4건)

※ 중점관리대상 56건 중 20건은 별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 2016년 모니터링 대상 33건(56건) : 국보 17건, 보물 13건, 사적 3건 완료

(2) 2016년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조치

○ 점검결과

- 지속점검 27건, 점검종료 5건(대상해제, 분야조정)

○ 후속조치 : 점검종료 및 신규선정

- 점검종료 5건(해제 3건, 분야조정 2건), 신규지정 1건(보존처리 완료)

[2016년 중점관리대상 모니터링 후속조치 사항]

구분	문화재명(지정)	검토내용
대상 해제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활주 등 보수완료
	담양 개선사지 석등(보물)	○기초부 풍화 석재 보수(교체)완료
	문경 조령 관문(사적)	○구조 불안정 성벽 보수 완료
분야 조정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보물)	○자연 암반에 대한 정밀진단 필요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인접 발파공사 중단 ○자연 암반에 대한 정밀진단 필요
신규 선정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보물)	○'15년 보존처리에 따른 모니터링 필요

(3) 2017년 모니터링 계획

○ 보존현황에 따른 연간 1~4회 현장점검 실시

○ 결과보고 및 관계부서, 관리단체 등 통보

- 유관부서 및 관리단체 결과통지 : 상·하반기 각 2회

- 2016년 결과보고서 발간 : 4월(예정)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

붙임. 2016년도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목록 및 주요결과

[붙 임]

2016년도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목록 및 주요결과

연번	대상 문화재	지정	주요결과	비고
1	서울 숭례문	국보 제1호	· 육축 석재 풍화 및 열화, 문루 생물피해 등이 확인되나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님 · 구조 거동(육축, 문루, 홍예)은 일정 범위에서 수치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	지속점검
2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국보 제9호	· '14년 계측결과 대비, 조적 거동의 진행성은 없음 · 일부 부재에서 변색(흑색,흑갈색)이 확인되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함 · 3층 이상 옥개석 낙수면에서 변색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접착계면 상태변화 모니터링이 요구됨	지속점검
3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국보 제13호	· 구조 거동은 오차범위 이내로 진행성은 없음 · 기둥, 첨차 등 일부 주요 부재 파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물피해 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함	지속점검
4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국보 제16호	· 인접 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영향 수준이 기준치를 초과하며 진동저감 대책이 필요함('18년 철도 이설 예정) · 옥개부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철도운행에 의한 진동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지속점검
5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18호	· 동·서측면 벽체에서 '15년 이후, 진행양상은 나타나지 않음 · 흰개미 피해는 확인되나,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흰개미 군체제거 시스템 설치가 요구됨 · 추녀, 도리, 공포부 등 주요 구조변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지속점검

연번	대상 문화재	지정	주요결과	비고
6	경주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20호	· 2009년 해체보수 이후, 균열 및 이격 등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변형은 나타나지 않음 · 9월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해 난간부재가 이완 및 탈락되었음 · 우천시, 기단상부 우수고임에 대한 보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09년 수리범위 제외대상)	지속점검
7	경주 석굴암 석굴	국보 제24호	· 석재균열 및 이격에 대한 추가 진행성은 나타나지 않음 · 공조 설비 진동 등 훼손현황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지속점검
8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국보 제30호	· '11년 보존처리 이후, 백화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됨 · 구조 거동의 진행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수치변화 폭이 큰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동측 기단석 하부유실에 대한 긴급 예방조치가 요망됨	지속점검
9	경주 첨성대	국보 제31호	· 9월 경주지진으로 전체 기울기변화(북동측)가 확인되었음 ·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추가 기울기변화에 따른 상부석재의 슬라이딩 가능성이 있음 · 지속적인 여진 및 구조변형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17년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예정)	지속점검
10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국보 제52호	· 목조부재 맞춤부 이격 및 갈램 등에 대한 진행성은 나타나지 않음 · 추녀부 처짐 등에 대한 진행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 변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지속점검
11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국보 제59호	· 지대석 부재 이탈 및 이격 등이 확인되나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임 · 비신 하부는 불연속면 및 박리·박락에 따른 표면풍화 훼손도는 최고등급임(5등급)	지속점검

연번	대상 문화재	지정	주요결과	비고
12	구례 화엄사 각황전	국보 제67호	· 주요 목조 부재 변형 및 흰개미 피해에 대한 진행성은 나타나지 않음 · 활주변형에 대한 보수가 진행 중이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대상해제
13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국보 제84호	· 암반변색, 생물오염, 백화피복도가 확인되나 풍화도는 양호한 상태임 · 암반 좌측상부가 절리, 이격 등 구조적 불안정한 상태로 사면 안전성 평가 등의 정밀진단이 필요함	지속점검
14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122호	· 지대석 및 기단부 균열 및 이격에서 추가적인 진행성은 확인되지 않음 · 지속적인 기초부 채움재 유실에 대한 보존조치가 요구됨(※보존처리 완료)	지속점검
15	울주 천전리 각석	국보 제147호	· 암반 상·하부를 중심으로 표면풍화(박리·박락), 변색, 생물피해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보존처리가 필요함 · 구조거동의 진행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풍화 및 변색 등의 손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지속점검
16	종묘 정전	국보 제227호	· 구조 거동 및 공포 부재파손, 기단부 변형, 흰개미 피해의 진행성은 나타나지 않음 · 주요 부재 손상 및 흰개미 피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지속점검
17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국보 제285호	· 자동계측시스템 설치(유형문화재과)	지속점검
18	서울 흥인지문	보물 제1호	· 문루 내부 포벽 마감부 균열 및 박락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보수가 진행중임 · 육축 및 문루 전체적으로 미미한 구조 거동 수치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자동계측(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성벽 이격 및 기울기)결과, 급격한 변화는 없으며 장기적인 계측이 요구됨	지속점검

연번	대상 문화재	지정	주요결과	비고
19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제62호	· 수직, 수평, 교차 등 다양한 방향의 불연속면으로 인해 표면풍화 훼손도는 최하등급임 · '15년 보존처리 시 수지처리 부분은 변색과 분말화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균열의 진행 양상이 확인되며 암반의 재료적 특성(불연속면, 파단면)에 대한 손상 저감방안이 필요함	지속점검
20	경주 석빙고	보물 제66호	· 석빙고 내부 석재 균열 및 파손, 배부름, 풍화 등의 훼손현상에서 추가적인 변형은 나타나지 않음 · 석빙고 내부결로 및 우수유입 등 습윤환경에 대한 원인 및 재료적 훼손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 일부 측정점에서 배부름 현상의 진행양상이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지속점검
21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물 제93호	· 암반 하부에 발달한 불연속면의 원인에 대해 물성취약 및 염류풍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재 인근 석산 개발을 위한 발파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며 발파작업 재개 시, 진동영향 수준을 측정 할 예정	분야조정
22	담양 개선사지 석등	보물 제111호	· '15년 점검 결과에 따라, 석등 해체보수 및 보존처리(~2017.01.) 완료되어 중점관리대상 해제 필요	대상해제
23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	보물 제141호	· 대성전 동북측 기둥 및 지붕부에서 미미한 수치변화가 확인됨 · 권역 내 건축문화재에서 다수의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나 방충사업이 진행 중임 · 명륜당, 동·서무, 동·서재 등에서는 부재 변형 등은 확인되나 진행성은 나타나지 않음	지속점검

연번	대상 문화재	지정	주요결과	비고
24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31호	· 석불 및 갓석 등에서 확인되는 균열 및 풍화 등에 대한 진행성은 없음 · 주요 훼손부에 대한 추가 훼손방지를 위한 보존조치가 요구됨	지속점검
25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581호	· 구성 암석(응회암)은 풍화에 매우 취약한 암석으로 초음파 측정결과, 현저히 풍화된(5등급)에 해당됨 · 암반 박리박락, 불균질 암석 조성, 염기성 포획암 탈락에 따른 동공 등으로 암반 전체의 보존상태는 매우 취약함	지속점검
26	달성 현풍 석빙고	보물 제673호	· 구조 거동 및 홍예석, 청판석, 배면 벽체의 석재균열, 이격 등에서 진행양상은 나타나지 않음 · 내부 습윤환경(결로) 및 변색, 생물피해 등에 대한 보존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속점검
27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제801호	· 대체로 북측 기둥 및 창방, 평방 등에 갈램, 파손 등의 손상이 집중되어 있음 · 구조거동은 오차범위 이내로 진행성은 없으나 단기간의 계측결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지속점검
28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보물 제1123호	· 암반에 대한 사면 안전성 및 석재 보존분야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방안 검토 필요	분야조정
29	논산 노강서원 강당	보물 제1746호	· 구조 거동의 진행성은 없으나 기둥 및 첨차, 도리 등 주요 부재 충해 및 부후, 파손 등이 현저함 · 전체적으로 흰개미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함	지속점검

연번	대상 문화재		지정	주요결과	비고
30	창덕궁 주합루		보물 제1769호	· 구조거동은 오차범위에서 진행성은 없으며 벽체 마감재 탈락, 반자 처짐 및 탈락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됨 · 추가 변형 및 원인 규명, 보존조치 방안을 감안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지속점검
31	수원 화성	북암문	사적 제3호	· 외측 성벽에서 수직방향 균열 및 이격에 대한 진행성은 나타나지 않음 · 상부 여장전돌의 풍화 및 파손이 심각하며 부재 파손 및 배부름양상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화성 성벽 전반에서 전돌 균열 및 파손, 풍화현상이 현저히 발생됨 ※ 전돌 훼손을 포함한 화성 전체구역에 대한 단계적, 종합적인 보존방안 수립이 필요함	지속점검
		화서문	보물 제403호	· 주두 파손, 창방 처짐 등에 대한 추가 진행 양상은 확인되지 않음 · 구조거동에서 미미한 수치변화는 오차범위 이내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지속점검
32	문경 조령 관문(3관문)		사적 제147호	· 육축 및 좌우 성벽에서 석재 풍화 및 생물 피해 등이 확인됨 · 육축 및 성벽에서 구조거동 양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성벽보수가 완료되어 중점관리대상 해제 필요	대상해제
33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사적 제311호	· 9월 지진발생으로 침하양상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자동계측시스템에 대한 보완 설치가 필요함	지속점검

안건번호 건축 2017-04-032

3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칠곡 송림사 오층전탑」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허가신청 29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9건	허가 22건 변경허가 2건 조건부허가 5건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경북 칠곡 (○○○)	□ 단독주택 신축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8-14번지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95m 이격)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27.6㎡(127.6㎡) - 층수/높이 : 지상 1층 / 6.69m - 구조 : 한식목구조	허 가	'17.03.23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경북 칠곡 (○○○)	□ 단독주택 신축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8-23번지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95m 이격)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19.5㎡(119.5㎡) - 층수/높이 : 지상 1층 / 6.69m - 구조 : 한식목구조	허 가	'17.03.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강원 원주 (ㅇㅇㅇ)	□ 단독주택 신축(재허가) ㅇ위치 :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456-14, 456-22번지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20m이격) ㅇ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45.44㎡(145.44㎡)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최고높이 7.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16.3월 허가된 내용과 동일하나 허가기간('16.03.22.~'17.03.21.) 만료로 인한 재신청	허 가	'17.04.17
울주 망해사지 승탑	울산 울주 (울산 박물관장)	□ 3D 스캔 및 정밀실측조사 ㅇ대상 : 울주 망해사지 승탑 *당해문화재에 해당됨. ㅇ사업내용 - 3D 스캔 및 정밀실측조사 *실측을 위한 임시 가설 설치	허 가 (가설자재가 문화재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촬영 및 실측한다.)	'17.04.17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울산 울주 (울산 박물관장)	□ 3D 스캔 및 정밀실측조사 ㅇ대상 :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당해문화재에 해당됨. ㅇ사업내용 - 3D 스캔 및 정밀실측조사 *실측을 위한 임시 가설 설치	허 가 (가설자재가 문화재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촬영 및 실측한다.)	'17.04.17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경북 칠곡 ((주)동화레져)	□ 칠곡 컨트리클럽 진입도로 개설 ㅇ위치 :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102구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90m 이격) ㅇ규모 : 소로2-기1호선 - B=8m, L=1,109m	허 가	'17.04.1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경남 밀양 (ㅇㅇㅇ)	□ 단독주택 및 창고 건립 ㅇ위치 : 밀양시 청도면 소태리 1071-7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50m 이격) ㅇ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축면적 : 82.5㎡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6.4m - 창고 ·건축면적 : 34㎡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4.3m	허 가	'17.04.17
울진 구삼리 삼층석탑	경북 울진 (ㅇㅇㅇ)	□ 단독주택 신축 ㅇ위치 :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179-15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83m 이격) ㅇ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50.26㎡(50.26㎡)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3.8m - 구조 : 경량철골조	허 가	'17.04.17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경북 영주 (영주시장)	□ 교량가설 및 제방 공사 ㅇ위치 :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620-20 일원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400m 이격) ㅇ사업내용 : 교량가설 및 제방 공사 - 교량 L=20.3m, B=6m - 좌·우제방 L=39m, B=4.5m	허 가	'17.04.17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경북 영천 (영천시장)	□ 은해사 백흥암 진입로 정비 ㅇ위치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49 일원 *보호구역 내 및 제1구역 ㅇ사업면적 : 128㎡ ㅇ내용 : 황토흙 재포장 THK=150	허 가	'17.04.17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td><td>전남 강진
((유)자연이
좋은
사람들)</td><td>□ 주차장 조성
○위치 :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738-4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0m 이격)
○주차장 조성
- 사업면적 : 3,519㎡
- 표토제거 : 2,919㎡
- 토사측구 : 229m
- 골재포설 : T=20㎝
※지반다짐 후 골재 포설</td><td>허 가</td><td>‘17.04.17</td></tr>
<tr><td>문경 내화리
삼층석탑</td><td>경북 문경
(문경시장)</td><td>□ 농로 및 배수로 정비(2차)
○위치 :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307 외 1필지
*보호구역 및 제1구역(보호구역과 접함)
※제3차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 자체검토 회의(‘17.03.10) 결과 : 부결
- 사업부지가 사지로 추정되는 위치이므로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
○사업내용
<table>
<tr><th>구분</th><th>당초</th><th>금회</th></tr>
<tr><td>토공</td><td>절토125㎥,
터파기 18㎥,
되메우기 155㎥</td><td>순성토44㎥,
터파기 18㎥,
되메우기 62㎥</td></tr>
<tr><td>배수공</td><td>U형측구
(0.6m*0.6m)
98M,
벤치플룸관
(0.6m*0.6m)
80M</td><td>벤치플룸관
(0.6m*0.6m)
80M</td></tr>
<tr><td>포장공</td><td>콘크리트포장
(T=20cm),
A=583㎡</td><td>콘크리트포장
(T=20cm),
A=452㎡</td></tr>
</table></td><td>허 가</td><td>‘17.04.17</td></tr>
</table>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경주 독락당</td><td>경북 경주
(세심마을
영농조합
법인)</td><td>□ 체험시설 증축
○위치 : 경주시 옥산리 4 외 1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0m 이격)
○사업내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차</th><th>2차</th></tr><tr><th>태양광 발전설비</th><th>체험학습장 (두부체험장, 화장실)</th><th>체험학습장 (화장실, 샤워실)</th></tr><tr><td>건축 면적</td><td>78.85㎡</td><td>기존 139.4㎡
금회 65.6㎡
합계 205㎡</td><td>기존 139.4㎡
금회 44.01㎡
합계 183.41㎡</td></tr><tr><td>구조</td><td>경량철골구조</td><td>경량철골구조</td><td>철근콘크리트구조 (전벽돌치장쌓기)</td></tr><tr><td>층수 및 높이</td><td>지상1층 / 4.2m</td><td>지상1층 / 5.75m</td><td>지상1층 / 3.3m</td></tr></table>
※참고자료
○현지조사(‘16.10.05.)
- 신청부지는 독락당 옆을 흐르는 계류 건너편으로 독락당에서는 수림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나, 독락당과 옥산서원을 연결하는 계류의 건너편 산 아래 지역임을 고려할 때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신청건물과 태양열 집열판이 기존 건물과 연결되어 증축될 경우 규모가 커져서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td><td>허 가</td><td>‘17.04.17</td></tr>
<tr><td>여수 진남관</td><td>전남 여수
(여수시장)</td><td>□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치 : 여수시 군자동 283 일원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90m 이격)
○사업면적 : 383㎡
- L=60m, B=6m</td><td>허 가</td><td>‘17.04.17</td></tr>
</table>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경기 이천 (○○○ 외 2인)	□ 창고부지 조성 ○위치 :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40-2 일원 *제2구역(문화재에서 94m 이격) ○사업규모 : 2,499㎥ (부지 2,421㎡, 도로 78㎡) ○옹벽설치 - H=0~3m, L=127.5m ※최대성토 3m	허 가	'17.04.17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경기 이천 (영월암 주지)	□ 방재시스템 구축 ○위치 : 이천시 관고동 438 일원 *보호구역 내 ○지능형 통합신호제어기·지능형 적외선 카메라·실내용 불꽃 감지기·정온식 감지기·경광등 설치 등 ※폴대 2개소 신규 설치(H=4m)	허 가	'17.04.17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전남 진도 (○○○)	□ 가설건축물(저온저장고) 축조 ○위치 :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374-5 *제2구역(문화재에서 241m 이격) ○연면적 : 10㎡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약2.7m	허 가	'17.04.17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인천 강화 (하음봉씨중앙종친회)	□ 수목 벌채 ○위치 :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22 *보호구역 내 ○"가" 구역 - 참나무 : 6본 ※뿌리 굴취 후 잔디식재 ○"나" 구역 - 아카시아 : 5본	허 가	'17.04.1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 (ㅇㅇㅇ)	□ 단독주택 부지 조성 ㅇ위치 : 제천시 장락동 90-3 *제5구역(문화재에서 286m 이격) ㅇ사업규모 : 997㎥ (부지 712㎡, 도로 285㎡) ㅇ전석쌓기 설치 - H=0.5~3m ※최대절성토 약5m	허 가	'17.04.17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전남 구례 (구례군수)	□ 보도교(출렁다리) 설치 ㅇ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서리 2-2 일원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90m 이격) ㅇ보도교(출렁다리) - L=46.5m, B=2m ㅇ진입 데크 계단 설치 ㅇ공사용 가설도로 축조 - L=42.6m, B=3.5m	허 가	'17.04.17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충북 청주 (청주시장)	□ "청주 옥 터" 바닥 표지판 설치 ㅇ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120-1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1m 이격) ㅇ"청주 옥 터" 바닥 표지판(동판) 설치 - 규격 : 92㎝ × 92㎝ - 하부 콘크리트 타설(깊이 30㎝)	허 가	'17.04.17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전남 구례 (남원윤씨문효공파종회)	□ 숲가꾸기 사업 ㅇ위치 :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91-18 *보호구역에 접함 ㅇ사업면적 : 24,730㎡ ㅇ주수종 : 소나무(70%), 밤나무(30%) ㅇ간벌률 : 30%(소나무 위주) - 소나무 고사목 제거 및 피압된 잡목 제거	허 가	'17.04.17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td><td>울산 울주
(○○○)</td><td>□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위치 :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03-4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390m 이격)
○사업내용
<table><tr><th>구분</th><th>당초</th><th>금회</th></tr><tr><td>건축면적</td><td>226.66㎡</td><td>234.01㎡</td></tr><tr><td>연면적</td><td>492.94㎡</td><td>493.58㎡</td></tr><tr><td>층 수</td><td>지상3층</td><td>지상3층</td></tr><tr><td>최고높이</td><td>11.9m</td><td>13.8m</td></tr><tr><td>구 조</td><td>RC조</td><td>RC조</td></tr></table>○변경사유 : 엘리베이터 오버헤드의 기술상 필요에 따른 높이 증가(1.9m)</td><td>변경허가</td><td>‘17.04.17</td></tr>
<tr><td>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td><td>경남 함양
(해광종합건설(주))</td><td>□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부지조성 (허가사항 변경)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23-5번지
*제2구역(문화재에서 215m 이격)
○사업내용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부지조성
- 일부 L형 옹벽을 조경석쌓기로 변경
<table><tr><th>구분</th><th>당초</th><th>금회</th></tr><tr><td>1~5호</td><td>L형(H=1.97m, L=10.38m)</td><td>조경석 쌓기 (H=0.2~2.4m, L=73.9m)</td></tr><tr><td>2호</td><td>L형(H=3.8m, L=26.9m)</td><td>변동없음</td></tr></table></td><td>변경허가</td><td>‘17.04.17</td></tr>
<tr><td>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td><td>충북 제천
(○○○)</td><td>□ 농로 확·포장
○위치 : 제천시 장락동 79-1 일원
*제1,3구역(보호구역에 접함)
○사업면적 : 1,086㎡
- L=362m, B=3m(콘크리트 포장)</td><td>조건부허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마감)</td><td>‘17.04.17</td></tr>
</table>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및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상주 (ㅇㅇㅇ)	□ 단독주택 신축 ㅇ위치 :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10-1번지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275m 이격) ㅇ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67.29㎡(67.29㎡)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3.8m - 구조 : 경량철골조	조건부허가 (도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17.04.17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울산 울주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도로개설(율리~삼동간)(재허가) ㅇ위치 : 울주군 청량면 율리 1184일원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70m 이격)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 ('06.12월 ~ '11.12월) ㅇ사업내용 - 총연장 : 7,400m - 도로폭 : 20m, 4차로 - 터널 : 630m, 병렬터널	조건부허가 (- 시험발파 시 진동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진동 규모 확인 후 공사 시행 - 착공 이후에도 계속적인 진동 계측 실시 - 사전 문화재 현황조사 실시)	'17.04.17
제주향교 대성전	제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야간조명 설치 ㅇ위치 : 제주시 용담1동 298-1 일원 *보호구역 내 ㅇ사업내용 : 야간조명 설치 - 조명기구 : 25개, H=약1m - 분전반 : 2개소, H=1.15m	조건부허가 (사업시행 시 매장문화재 관련(터파기시) 입회조사)	'17.04.1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충남 공주 (ㅇㅇㅇ)	□ 벼룩시장 운영 ㅇ위치 : 공주시 반죽동 268-1번지 *제1구역(보호구역에 접함) ㅇ사업내용 - 기간 : 4월~11월 중 매주 토요일 - 설치시설 : 천막2동, 테이블 2개, 의자 10개	조건부허가 (- 행사 시간 이외에는 천막, 테이블 등 설치 시설 일체를 철거 - 안전관리 계획 철저히 이행)	'17.03.28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